

발간 등록 번호

71-394000-000111-14

2010 직원교육교재

# 고양시 바로알기



고양시  
Goyang City

고양시 바로알기

고양의 명산, 북한산과 꽃

## 고양시 바로알기로 시민과 하나 되는 행정 기대...

고양시는 7만 5천년 전 대화동 일대에서 사람이 거주한 이후, 고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 까지 유서 깊은 역사와 문화의 고장입니다. 특히 고려조와 조선조,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는 수도 주변에 위치하여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흔적이 수많은 문화유산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임진왜란 등 국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다함께 힘을 합쳐 행주산성에서 대침을 거두기도 했으며, 문봉서원의 고양팔현은 종철의 표심이며 고양의 정신적 사상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고양 땅은 오래전부터 길지로 알려진 살기 좋은 곳입니다. 동쪽으로는 수도 서울의 전산인 북한산이 솟아 있고, 서쪽으로는 수도권 2천만 명의 젖줄인 한강이 흐르고 있는 천혜의 땅입니다. 이러한 뛰어난 지형과 지세로 인해 오래 전부터 마을이 생기고 왕릉 조성과 같은 국가적 대사가 자주 있어 왔습니다.

이렇듯 오랜 기간 선조들이 남겨놓은 고양의 역사적 발자취가 최근 도시화와 산업화 등으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급속한 도시개발 등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주하고 자연촌락의 소규모 마을이 고층 아파트 마을로 바뀌면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고양지역에 대한 정체성과 애함심의 부족 문제입니다.

자신이 거주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고장에 대한 관심 부족은 지역 발전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2003년도부터 신규 공직자 교육에 내고장 바로알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을 위한 고양시 알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책자의 발간은 우선 고양시 공직자들의 내 고장 바로알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된 것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고양지역 발전의 리더로서 고양에 대한 정체성과 확고한 지역의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정에 대한 다양한 행정력을 발휘하여 고양시 발전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 모두가 내 고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이상을 가지고 실천할 때 고양시의 밝은 미래가 다가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수 만년 역사를 미래의 희망과 영광으로 이어가기 위한 고양시 바로알기 운동에 공직자 여러분이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 책자를 통해 직원 여러분의 시정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감사의 글을 전합니다.

2010년 6월

고양시장

# 차례

## 제1장 지리적 위치와 자연환경

- 1. 고양의 지질 ..... 8
- 2. 산 ..... 8
- 3. 고개 ..... 14
- 4. 호수·연못 ..... 15
- 5. 하천 ..... 17
- 6. 평야 ..... 18
- 7. 기후 ..... 19

## 제2장 고양시의 생활환경

- 1. 면적 ..... 22
- 2. 인구 ..... 22
- 3. 교통과 도로 ..... 23
- 4. 산업 ..... 25
- 5. 자매결연도시 ..... 26

## 제3장 고양시의 역사

- 1. 구석기시대 ..... 28
- 2. 신석기시대 ..... 29
- 3. 청동기시대 ..... 29
- 4. 삼국시대 ..... 30
- 5. 고려, 조선시대 ..... 32
- 6. 근대 ..... 33
- 7. 현대 ..... 35
- 8. 고양의 미래 ..... 36

## 제4장 고양 문화의 향기

- 1. 고양시의 문화유산 ..... 40
- 2. 고양시의 명승지 ..... 52
- 3. 민속놀이 ..... 55
- 4. 인물 ..... 58
- 5. 전통민속과 축제 ..... 61

## 제5장 마을 이야기

- 1. 덕양구 ..... 65
- 2. 일산동구 ..... 75
- 3. 일산서구 ..... 81

## 제6장 고양시 바로알기(강의자료) ..... 85



## 일러두기

이 책자는 고양시에서 공직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발 행 일 : 2010년 6월
- 발 행 처 : 고양시 총무국 총무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번지
- 자료제공 및 고증 : 고양시 문화복지국 문화예술과
- 감 수 : 정후수(한성대 교수, 전 고양시사 편찬위원)
- 사진협조 : 고양시 공보담당관실 외

제 1 장  
지리적 위치와 자연환경



고양시는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중앙 서부에 위치한다. 삼국시대부터 정치·군사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온 경기도의 서북부에 있다. 남동쪽으로 서울특별시와 이웃하고 북동쪽으로 양주시, 북서쪽으로 파주시, 남서쪽으로 한강을 사이에 두고 김포시에 접해 있다.

고양시를 지도에서 보면 그 모양이 마치 물고기인 가오리 같다. 고양시청이 있는 주교동(원당)을 중심으로 하여 동쪽의 끝은 효자동, 서쪽의 끝은 송산동, 남쪽은 대덕동이며 북쪽의 끝은 고양동이다. 고양시는 동서간의 거리가 남북간의 거리보다 좀 더 넓은 모양이다 (동서간 거리 27km, 남북간 거리 18km).



## 1. 고양의 지질

고양시를 이루는 토양은 대부분 서생대 선캄브리아 시대에 속하는 것으로 남부는 화강편마암, 북부는 결정편마암계로 이루어져 있다. 고양지역의 북한산과 그 주변은 대부분 회색의 화강암이 많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흰 편마암이 땅속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고양시 대부분의 토양은 화강암이 잘게 부서져서 이루어진 흙 성분이 많으며, 한강 주변은 모래알이 섞인 습지성 흙도 나오곤 한다. 특히 한강 주변에는 토탄층이란 검은 흙도 나오고 있다.

덕양구의 동북쪽 지역에서는 붉은 황토가 많아 밭농사가 알맞다. 일산동·서구의 서부지역과 같이 오랜 침식작용과 한강에 의한 흙·모래가 옮겨져 이루어진 농경지도 곳곳에 있다. 능곡동에서 송포동, 송산동 일대는 강이 넘쳐 만들어진 충적지로 토지가 매우 비옥하며 이곳에서 산출되는 일산·송포밭이 유명하다. 공릉천 일대는 대부분이 충적층으로 덮여 있고 해발고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항상 침수의 위험을 갖고 있었으나 제방을 쌓아 최고의 농경지를 이루고 있다.

고양시의 지세는 대체로 평탄하나 동쪽으로는 광주산맥의 하나인 북한산이 높게 솟아 있고 산줄기가 길게 서쪽으로 계속 이어진다. 이 산줄기는 북서쪽에서는 고봉산을 지나 한강으로 이어졌고 남서쪽으로는 덕양산을 만들었다. 높은 곳에서 보면 산줄기가 동에서 서쪽으로 길게 한강 주변까지 이어진다.

전체적으로 보면 북동부는 산악지대로 곳곳에 구룡성 산지가 있고 중앙부는 야산지대로 산림이 울창하며, 서부의 한강과 남부 창릉천 연안에는 비교적 피적평야가 형성되어 있어 대부분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다. 야산지대는 토질이 비옥하여 과수원과 밭으로 개간된 곳도 있다. 우리 고양의 중심부를 공릉천·창릉천이 각각 북서·남서 방향으로 흘러 농업용수에 이용되기도 한다. 동쪽은 높아 산지가 많고 서쪽은 낮은 구룡언덕 또는 넓은 평야가 이어져 있다.

## 2. 산

### 북한산 (836m)

우리 시에서 가장 높은 산이며 한국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유명한 산이다. 다른 이름으로 삼각산·화산·국망봉 등으로 불리고 있으며, 가장 높은 봉우리는 해발 836m인 백운대이다. 주로 회색의 화강암 바위가 많아 험하지만 자연환경이 매우 아름답다. 특히 인수봉, 노적봉, 백운봉, 만경봉 일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절벽을 오르내리며 암벽 타기를 하고 일반 시민들도 주말을 이용하여 등산하는 유명한 산이다. 현재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보호·관리되고 있다.

산속에는 고양시 북한동 마을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대표적인 산촌 마을이다. 이 산에는 삼국시대 초기에 백제가 쌓은 북한산성의 일부와 조선시대에 쌓은 성곽이 지금도 남아 있다.



북한산 백운대와 인수봉

백운대·인수봉 등을 서울 사람들이 많이 오르지만 이곳은 모두 우리 고장에 있는 봉우리들이다. 백운대와 인수봉은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 1-1번지에 있으며 삼각산은 북한산의 일부만을 부르고 있는 별칭이다.

#### 고봉산 (208m)

높은 봉우리 또는 봉화를 올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일산동구 중산동과 고봉동의 경계를 이루는 산이다. 고봉산의 정상 아래 부분에 평평한 평지가 띠를 두른 듯 산 전체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테외산이라고도 부른다.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의 성이 있었으며, 조선시대에는 봉수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일산지역에서 가장 높고 중요한 산으로 역사적인 중요성 이외에도 장사바위, 한씨미녀 등 많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최근 이곳 일대가 개발되어 고봉산의 생태계 등에 관해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의 관심이 높아졌으며, 고봉산 두리길도 만들어지기도 했다.

#### 덕양산 (124m)

덕양구 행주내·외동에 걸쳐 위치한 산으로 행주산, 성산으로도 불린다. 산의 남쪽과 서쪽은 한강, 창릉천과 맞닿아 있어 멀리서 보면 마치 섬과 같이 보인다. 덕양산 일대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조선군이 왜군을 맞아 '행주대첩'을 거둔 곳이다. 지금 이곳에는 행주대첩비 등 많은 문화재가 있으며 시민들이 자주 찾는 우리 고장의 명소이다. 산 정상에 오르면 서울 및 인천, 강화, 파주 등이 조망된다.

#### 견달산 (132m)

일산동구 식사동과 고봉동 사이에 있는 산으로, 예전에 가뭄이 들면 하늘에 비를 바라며 기우제를 지내던 산이다. 산이 매우 멋있게 생겨 부근 마을 사람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곳이다. 옛날 중국 황제의 세숫대야에 비추어져 그 기운이 도달

한 곳이라 하여 견달산이라 부른다. 현재 인근에 군 작전지역이 있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계(개)명산 (545m)

고양시 고양동과 양주시, 파주시와 경계를 이루는 지역에 있는 산으로, 이 산의 계곡물은 공릉천으로 흐른다. 개명산에는 큰 골짜기가 있으며 나무와 숲이 울창한 것으로 유명하다. 우리 고장의 북쪽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다. 아침, 새벽을 연다는 뜻에서 개명산, 닭이 우는 곳이라 하여 개명산으로 불린다.

#### 우암산 (328m)

고양시 고양동과 파주시 광탄면의 경계를 이루는 산으로 일명 비호봉이라고도 한다. 정상에 서쪽에 해음령이라는 고개가 있다. 이 산에서 시작되는 모든 개울은 공릉천으로 흐른다.

#### 노고산 (495m)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과 양주시 장흥면의 경계를 이루는 산으로 한미산이라고도 한다. 산 줄기를 분수령으로 북쪽의 물은 공릉천으로, 남쪽의 물은 장릉천으로 흐른다. 산의 남쪽 기슭에 신라시대의 사찰인 천년고찰 흥국사가 있다. 이곳은 특히 가을의 단풍이 아름다우며, 산 아래에 양주시 일영유원지가 있다.

#### 독산 (133m)

임산동구 고봉동에 있는 산으로 조선시대에는 이곳에 독산 봉수대가 있었다. 솟달산·문수산·봉화독 등으로도 부른다. 이곳에 오르면 남북한을 연결하는 통일로를 비롯해 북쪽으로 고봉산 등이 보인다. 산꼭대기에는 지금도 봉화터가 잘 남아 있어 경기도에서 문화재로 지정하였다.

#### 망월산 (169m)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에 걸쳐 있으며, 서오릉의 안산 역할을 하는 산이다. 망월

산은 해마다 정월대보름에 둥근 달을 보는 산이라는 뜻의 이름이다. 산 아래에 한국항공대학교가 있고 경의선과 고속철도(KTX)가 지나고 있다.

#### 봉대산 (95m)

창릉천 하류의 고양시 덕양구 행신2동 강매마을에 있는 산으로, 강고산이라고도 부른다. 산 정상에는 봉화대가 있었으며, 가까운 거리에 대덕산과 덕양산이 있다. 봉대산은 봉화가 있어서 생겨난 이름이다.

#### 대자산 (210m)

면이은 봉우리가 덕양구 고양동과 대자동을 둘러싸고 있는 산이다. 조선시대에는 고양군 관아의 뒷산으로 산 동쪽에 동현, 벽제관, 향교, 사직단, 성황당 등이 있었다. 대자산에서 시작되는 모든 하천은 공릉천으로 흐르며, 산 기슭에는 최영장군묘, 고양향교, 고양군 관아터 등이 남아 있다.

#### 영주산

덕양구 능곡동에 있는 산으로,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지맥을 끊으려고 이곳에 쇠말뚝을 박았다고 한다. 산 정상에 수림이 울창했으며, 아래에 대곡초등학교가 있다.

#### 성라산 국사봉 (109m)

덕양구 성사2동과 화정1동, 풍도동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이곳에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국사봉이라 하였으며 별아산으로도 불린다. 산 아래로 지하철 3호선 원당역, 신원당마을, 화정동 아파트단지, 고양여울림누리가 있다. 성라산은 밤에 별이 비단과 같이 많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가라산

덕양구 행신3동 가라피마을에 있는 산으로, 예부터 가라의 산신제와 푸른 소나무 지역으로 유명하였다. 지금은 가라정이라는 정자와 함께 공원으로 만들어져 있어 지역 주민들이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다.

#### 봉산 (209m)

덕양구 창릉동·화전동과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구산동 경계에 있는 산으로, 조선시대에는 서울 안산으로 이어지는 봉수대가 있었다. 봉산이라는 이름은 이 봉수대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산 아래 향동동은 현재 한창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 영봉 (235m)

덕양구 창릉동과 서울시 은평구 구파발동·갈현동 경계에 있는 산으로, 남서쪽

기슭에는 서오름이 있다. 산이 높아 북한산의 아름다운 모습과 고양시의 대부분 지역을 볼 수 있는 산이다.

#### 황룡산 (134m)

일산동구 고봉동 및 일산서구 탄현동과 파주시 교하면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남쪽 아래에는 용강서원이 있다. 예부터 이곳에 누런 용이 살았다고 하여 황룡산이라 부르고 있다. 고봉산 누리길과 연결되어 있다.

#### 명봉산 (247m)

덕양구 관산동과 파주시 조리면 및 광탄면의 경계를 이루는 산으로, 장령산이라고도 부른다. 이곳에서 시작하는 하천은 모두 공통천으로 흐르며 산 아래에 경찰연수원, 국제법률대학원 등이 있다. 봉황이 우는 곳이라 하여 명봉산이라 했다 한다.

#### 견지산 (89m)

덕양구 흥도동 나무드머리마을에 있는 산으로 산 아래로 서오름로가 지난다. 산 정상 of 동쪽에는 청지도요지가 있으며, 최영 장군이 머물렀다는 바위도 남아 있다.

#### 철마산 (148m)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산이다. 산 위에서는 고양지역의 서쪽과 남쪽을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이곳에서 최초로 만든 말이 발견되어 철마산이라 부른다.

#### 대지동 국사봉

덕양구 고양동·관산동과 파주시 사이에 있는 산으로, 산 아래에 조선조 중기 고양지역을 다스리던 관아 자리가 남아 있다. 이곳에서 고양의 군수가 제사를 지냈다고 하여 국사봉이라 부르며 또 달리 옥녀봉이라 하기도 한다. 산 너머에는 파주시 용미리 공원 묘지가 조성되어 있다.

#### 구산

일산서구 송산동 거그뢰마을에 있는 산으로, 파주시 교하면 심약산(심학산)과 가까운 곳에 있다. 산의 모양이 거북이와 비슷하다고 하여 구산(龜山)이라 한다. 산 앞으로는 넓은 송포평야가 펼쳐져 있다. 이곳에서 조선조 중기 유학자인 구봉송익필 선생이 거주하며 후학을 가르치기도 했다.

#### 장산

일산서구 송산동 노루뵤마을에 있는 산으로, 거북바위가 솟을 등지고 넓은 들판을

바라보는 산의 모양이 마치 노루와 같이 생겼다 하여 이름이 붙여졌다. 또 달리 이 마을에 노루가 많았다고 하여 장산마을이라 하기도 한다. 장산마을 이름을 우리말로 노루피라 부른다.

#### 정발산 (81m)

일산 신시가지의 중심이 되는 산으로 높이가 81m 밖에 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의 휴식처 등으로 이용되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수 백년 전부터 고양시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도당굿이 행해지고 있다. 현재에는 산 아래가 많이 짙여 일산동구청, 아파트, 주택 등이 들어섰다. 마두동, 장항동, 정발산동에 속해 있으며 산 부근에 예쁜 단독주택들과 지하철 정발산역, 국립암센터, 문화공간 고양아람누리 등이 있다. 정발산은 산 모양이 솔과 밤 주발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 봉계산

덕양구 흥도동에 있는 산으로 이곳에서 예부터 큰 소를 잡아 산 제사를 지낸다고 하여 봉계산이라 부른다. 산 정상에 큰 바위가 있고 그 아래에 계단이 만들어져 있다. 가을에 주민들이 모여 풍년기원, 질병예방 등을 기원한다.

#### 옥녀봉

덕양구 효자동에 있는 큰 산으로 노고산 줄기에 있는 봉우리이다. 이곳에서 보이는 북한산 주 능선의 경치가 아름답다.

#### 상산

덕양구 고양동 관내의 선유동마을에 있는 산으로, 높은 산이라 하여 상산이라 부른다. 상산 아래의 마을 이름도 이 산의 이름을 따서 상산이라 부른다. 산의 기슭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나며, 그 아래로 공릉천이 굽이쳐 흐르고 있다. 주변에 높은 산이 없어 조망이 좋다.

#### 매봉재

덕양구 원신동에 있는 산으로 유명한 송강마을이 이 산기슭에 있다. 월산대군묘와 사당 등 조선시대 왕족과 관련된 역사와 문화유산이 많은 곳이다. 산 아래로 공릉천이 흐른다. 산에서 매를 이용해 핏사냥을 했다고 하여 매봉재라 부른다.

#### 동글봉

덕양구 고양동에 있는 봉우리로 산 모양이 예쁘고 동글다고 하여 동글봉이라 부른다.

## 고령산

고양동에 있는 큰 산으로 산 아래로는 의정부-원당을 잇는 덕양대로가 지난다. 예전 관서대로를 지나는 곳의 중심산으로 현재 수풀이 우거져 환경·생태적으로 가치있는 산으로 여겨진다.

## 3. 고개

### 혜음령·퇴패고개

덕양구 고양동과 파주시 광탄면 사이의 고개로 서쪽으로는 장령산이, 동쪽으로는 우암산 비호봉이 있다. 옛날 중국이나 북부지방에서 서울을 오고 갈 때 지나는 중요한 도로로 이 길을 경의대로, 의주로, 연행로라 하거나 또는 관서대로라 하였다. 고개가 높고 험해 정상에 오를 때 그 곳 사찰에서 길손에게 숙식을 제공했다고 해서 혜음령이란 이름을 갖게 되었다. 요즈음도 많은 눈이 내리면 교통에 어려움을 주는 큰 고개이다. 현재 고개 주변에는 올림픽·서서울골프장과 애덕의 집, 벽제병원 등이 있다. 이 고개의 북동쪽으로는 파주 보광사로 넘어가는 퇴패고개가 있다. 퇴패고개란 이름은 임진왜란 당시 왜군에 크게 패한 명나라 장수 이여송이 도망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숫돌고개(여석령)

덕양구 신원동·오금동 마을에서 삼송동으로 넘어가는 통일로 구간의 고개이다. 이 고개 부근에는 칼을 가는 돌, 즉 숫돌이 많이 생산되었다고 하여 숫돌고개라 하였다고 한다. 또한 임진왜란 때 벽제관 전투에서 패배한 명나라 이여송 장군이 복수를 다짐하며 바위에 칼을 갈아 숫돌고개라 부른다고도 한다.



### 성황당고개

덕양구 성사1·2동과 흥도동의 경계에 있는 고개로, 지하철 3호선 원당역에서 구파발 방향으로 200~400m 구간에 있다. 수 백년은 되었을지한 성황당 나무가 있었다고 하는데, 1970년대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 때 이 나무가 베어져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

#### 관청령 (바느라지고개)

덕양구 대자동 바느라지마을에서 고양동으로 넘어가는 산등성이에 있는 고개이다. 조선조 중기 때 고양군청 등 여러 관청이 고양동 읍내마을로 옮겨졌는데, 이 읍내마을로 넘어가는 고개라 하여 관청령이라 하였다고 한다. 또한 바늘과 같이 뾰족하다고 하여 바느라지고개(침현)라고도 한다.

#### 낙타고개

덕양구 원신동의 원당동과 신원동 사이에 있는 큰 고개로, 고개 아래에 월산대군의 사당과 묘가 자리하고 있다. 고갯마루의 모양이 낙타 등과 같이 두 개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송강고개

덕양구 원신동 송강마을에서 원당동 진터말 쪽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이 고개에는 송강 정철 선생의 옛 집터가 있었고, 공룡천에 접한 곳에 큰 바위가 있었는데 이곳은 정철 선생의 남시터였다고 한다. 고개 입구의 마을 앞에 송강 정철 선생의 시가 적힌 시비와 사적비가 세워져 있다.

이외에도 고양에는 사리재고개, 개미고개, 숲고개, 찻골고개, 만재고개, 독정고개, 휘파람고개, 하하고개, 솔고개, 벌고개, 목암고개 등이 있다.

## 4. 호수 · 연못

#### 일산호

일산호는 일산동구의 잠향동, 일산서구의 주엽동 일대에 걸쳐 있는 호수공원 내 인공호수이다. 호수 안에는 예수교, 오각교 등의 다리를 비롯해 높이 50m의 고공 폭포수, 노래하는 분수대, 자연학습장 등이 있다. 이외에도 한국의 전통공원, 선인장 전시관, 화장실 전시관, 꽃 전시관 등의 시설물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총 둘레 6km, 약 50만㎡의 거대한 일산호는 늘 많은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이곳 일산호가 있는 호수공원에서는 수 백만 명의 관

랍객이 참가하는 세계적인 꽃 박람회가 열린다. 또한 고양시 호수예술제와 같은 축제가 열리기도 한다. 특히 산책 및 트레킹, 자전거 타기, 숲과 호수의 어우러짐 등으로 한국에서 가장 걷기 좋은 곳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일산 호수공원과 일산호

### 용연

공릉천 중간 지점인 관산동 앞의 연못으로 지금은 자리만 남아 있다. 원래 이 연못 위에는 용의 머리 모양을 한 기암괴석이 있어 용두산이라 불렀다. 연못에 잉어가 많았는데 잉어는 용의 자손이라 하여 용연(용의 연못)이라 이름지었다 하기도 한다.

### 광대연

공릉천에 있는 이 연못에 옛날 창부(남자광대)가 빠져 죽어 광대연(광대의 연못)이라고 하는데, 흐린 날이나 비가 올 때에는 광대의 혼이 담긴 북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 은지

덕양구 흥도동 도내동마을에 있는 커다란 연못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550년 전에 이죽이라는 분이 연못을 파고 세상을 피하여 숨은 곳이라 하여 은지(숨은 연못)라고 불렀다고 한다. 지금도 연못이 남아 있으며 고양시 향토유적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연못 속에 물방개, 소금쟁이 등 여러 물곤충이 있어 생태 환경으로도 중요한 곳이다.

## 5. 하천

### 한강

한강은 강원도에서 시작해 수도 서울을 지나 고양으로 흘러 들어와 황해(서해)로 흘러가는 한반도의 젖줄이다. 고양시로는 처음 대덕동에서 시작되어 송산동으로 약 22km 정도 흐르고 있으며 행주나루, 이산포나루가 널리 사용된 중요한 나루터이다.

한강에서는 예부터 용어, 송어, 참게, 황복 등 매우 다양한 물고기의 종류가 살았다. 급격한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인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한강은 벽을 감을 정도로 깨끗하였으나 한때 오염으로 많은 물고기가 사라졌다. 최근 들어 다시 조금씩 깨끗해져 철새와 물고기가 되돌아오고 있다. 특히 고양지역의 한강은 안보상 중요한 것으로 여겨져 자유롭게 출입할 수가 없다. 장항습지는 세계적으로 그 보존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보존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한강과 고양시 모습

### 공릉천

공릉천이 시작되는 곳은 덕양구 고양동·신도동과 양주시 장흥면의 경계선이며, 관산동, 사리현동, 지영동을 거쳐 파주시 교하면에서 한강과 만난다(총 길이 30.5km). 파주 삼릉에 있는 공릉의 명칭을 따서 공릉천으로 부른다. 주변의 퇴적 평지대는 화훼단지과 논으로 이용되고 있다.

### 창릉천

효자동 북한산에서 시작되어 효자동, 신도동, 흥도동, 대덕동, 행신2동을 지나 행주산성 아래에서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하천이다(총 22.5km). 고양시의 동쪽에서 서남쪽으로 흐르는 이 하천 가까운 곳에 서오릉이 있다. 창릉은 서오릉 내의 조선 제8대 왕인 예종의 능으로, 창릉천은 이 능의 이름을 딴 것이다. 한때 덕수천으로 불리기도 했다

### 향동천

덕양구 화전동 향동동마을에서 시작하여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길이 3km의 하천이다. 평소에는 물이 거의 없는 작은 하천이다.

### 대장천

덕양구 주교동, 성사1동에서 시작하여 능곡동을 거쳐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5.6km의 하천이다. 하천 주변에 넓은 농곡평야가 만들어져 있으며, 대곡역 부근을 지나기도 한다.

### 장월평천

일산동구 고봉산에서 시작하여 경의선 일산역 앞을 거쳐 일산서구 송산동의 덕이동과 가좌동, 구산동을 지나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하천으로 총 길이가 10km 가량 된다. 고양시에서 가장 넓은 송포평야를 지나는 하천이다. 상류는 예전에 삼정천이라 부르기도 했다.

### 도촌천

일산동구 식사동 견달산에서 시작되어 풍산동, 백석동을 거쳐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총 길이 6.5km의 하천이다.

이들 하천 이외에도 우리 고양시에는 벽제천, 식사천, 성사천, 오금천, 원당천 등의 작은 하천이 곳곳을 흐르고 있다.

## 6. 평야

### 일산평야

일산동구 장항동·백석동 및 일산서구 주엽동 일대의 큰 평야지대이다. 일제시대 이전에는 큰 쓸모가 없는 갈대밭이었는데, 1960~70년대의 경지작업 등으로 고양시 최고의 기름진 땅으로 바뀌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일산쌀은 매우 유명하였다. 현재는 대부분 아파트나 창고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예전과는 그 쓰임새가 많이 달라졌다.

## 송포평야

일산서구 대화동·송산동 일대의 넓은 평야를 송포평야라고 한다. 한강 주변에 있어 퇴적층 토질이 모여져 매우 기름진 곳으로 송포쌀·가와지쌀로 유명하다. 한강과 장월평천의 물을 이용해 농사를 지으며 예전에는 일산장을 통해 송포평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거래되었다. 이곳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재배 범씨인 가와지 범씨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 지역은 개발 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어 큰 변화가 예상된다.



## 농곡평야

덕양구 농곡동·대장동·행주동·행신2동 일대의 큰 평야를 말한다. 평야 가운데로 경의선·교외선 철도가 지나며 한강의 물을 이용해 농사를 지었다. 지평선이 보일 정도로 큰 벌판이었다. 이 주변에 고양시와 서울, 부산, 목포를 연결하는 고속철도(KTX) 출발역인 행신역이 있다. 현재도 마을과 화원, 논, 도로를 볼 수 있다. 농곡역 부근은 별도로 얼음들이라 부르기도 했다.

## 7. 기후

고양시라는 좁은 지역을 한정하여 기후를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크게 보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기후와 같다. 다만 한강이 흐르는 강변 지역이라 안개가 끼는 날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많다.

2008년을 표본하여 관찰된 기상 기록은 다음과 같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평균 기온 (℃)	-3.4	-3.2	6.0	12.9	16.8	22.0	25.1	25.0	20.8	14.5	5.7	0.0	11.9
최고 기온 (℃)	9.2	12.1	20.0	27.8	29.7	30.7	33.6	36.6	32.7	26.8	20.9	14.1	24.5
최저 기온 (℃)	-18.2	-17.2	-7.4	-2.5	4.3	9.2	19.0	15.1	6.3	-0.6	-11.3	-15.2	-13.8
강수량 (mm)	6.0	4.5	49.5	31.0	68.0	117.5	536.5	187.0	113.0	29.5	11.0	22.5	98.0
상대습도 평균 (%)	81.2	56.9	63.0	59.6	65.2	69.5	81.3	75.3	74.6	73.4	70.0	65.6	68.0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고양시의 연평균 기온은 섭씨 11.9도이며, 최고 기온은 8월의 섭씨 36.6도, 최저 기온은 2월의 영하 17.2도이다. 또한 비가 가장 많이 오는 달은 7월이며, 일년 동안 내리는 강수량 1,176.0mm의 약 34%가 7월 한 달 동안 내린다(536.5mm).

## 제 2 장

### 고양시의 생활환경



## 1. 면적

우리가 살고 있는 고양시의 전체 면적은 총 267.41km<sup>2</sup>이다(2010년). 이 중에서 덕양구가 165.51km<sup>2</sup>, 일산동구는 59.13km<sup>2</sup>, 일산서구는 42.77km<sup>2</sup>이다.

### 행정동과 법정동

고양시는 서울시와 가까운 쪽의 덕양구와 파주시와 인접해 있는 일산동구, 일산서구로 나뉘어져 있다. 이 3개 구 속에는 모두 39개의 행정동과 53개의 법정동이 있다. 이 중 행정동은 주로 인구에 의해 도로나 하천 등으로 나뉘어지며 법정동은 고개, 하천, 산등성이 등 자연적인 지형물에 의해 나뉘어져 있다.

고양시의 여러 마을은 크게 도시마을, 농촌마을, 도시와 농촌이 합쳐진 마을, 어촌 마을로 나뉘어진다. 덕양구에는 주교동, 성사1·2동, 화정1·2동, 행신1·2·3동, 능곡동, 행주동, 대덕동, 화전동, 창릉동, 흥도동, 효자동, 신도동, 고양동, 관산동, 원신동이 있다. 일산동구에는 식사동, 풍산동, 백석1·2동, 마두1·2동, 장항1·2동, 정발산동, 중산동, 고봉동이 있으며, 일산서구에는 주엽1·2동, 송포동, 대화동, 송산동, 일산1·2·3동, 탄현동이 있다.

이 중 가장 면적이 큰 곳은 덕양구의 효자동이며 고봉동, 고양동, 송산동 순으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가장 면적이 작은 마을은 성사2동이며 마두2동, 주엽1동, 주엽2동 순으로 면적이 작다.

## 2. 인구

고양시의 인구는 현재 94만 1,737명(2010.4월말 기준)이다. 덕양구에는 39만 3,164명이 살고 있고, 일산동구에는 26만 1,293명, 일산서구는 28만 7,280명이 살고 있다. 또한 남성 인구는 46만 5,148명이고 여성 인구는 47만 6,589명으로 여성이 조금 많다.

### 3. 교통과 도로

고양시는 고려시대의 수도인 개성과 조선시대의 수도인 한양(서울)의 중간 지점에 있어 예부터 교통의 중심지였다. 우리 시로는 남북통일의 상징인 자유로와 통일로를 비롯해서 고양대로, 덕양대로(호국로), 중앙로 등이 지나고 있다. 또한 경의선, 서울교외선 등의 철도와 지하철 3호선이 지나고 있으며, 서울과 부산·목포 등을 빠르게 연결하는 고속철도(KTX)가 고양시 행신역에서 출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경의선 철도 전철화 개통 공사와 방화대교 연결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완료되어 교통이 더욱 편리해졌다. 이외에도 인천국제공항으로 연결되는 신공항고속도로도 우리 고양시에서 시작된다. 올 6월 일부 개통을 앞둔 제2자유로도 고양시의 교통 흐름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 고양대로

이 도로는 고양시의 주 진입로인 구파발 방향에서 고양시청 앞을 지나 일산서구까지 연결된 도로로, 도로 주변에 대규모의 상가나 아파트는 없으며 지하철 3호선 원당역 등을 지나고 있다. 고양시는 들어오는 큰 길이라 하여 고양대로라고 하였다. 주변에 삼성 신도시가 한창 개발되고 있다.

### 덕양대로(오국로)

이 도로는 행주대교에서 고양시청을 경유, 공릉천을 지나 고양동, 양주시 경계까지 이어진다. 덕양구를 지나는 큰 도로라는 의미에서 덕양대로라고 하였으며 농촌 지역과 아파트 지역을 골고루 통과한다. 고양 지역 이외에 양주·의정부·포천까지 연결되어 호국로라 부르기도 한다.

### 자유로

고양시 행주산성 아래에서 시작해 한강을 따라 파주시 문산 방향으로 이어진 큰 도로이다. 왕복 10차선으로 고양시에서는 가장 길고 넓으며 통행량도 많다. 북한으로 이어져 있어 앞으로 통일에 대비해 만들어진 도로이다. 한강에 비춰지는 낙조 등이 아름다우며 인근의 파주시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동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 통일로

우리나라의 큰 도로 중 하나인 1번 국도이다. 고양시 지역은 서울시의 구과발에서 덕양구 관산동까지 연결되어 있다. 왕복 4차선으로 파주·고양·서울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이며, 자유로가 생기기 전 남북 왕래의 대명사처럼 불리던 유명한 도로이다.



### 중앙로

서울시 수색에서 우리시 행신, 화정, 백석을 경유, 대화동으로 연결되는 핵심 도로이다. 주변에 대규모의 상가 및 관청, 기관, 아파트 등이 있어 교통량이 매우 많

은 고양시의 중심 도로이다. 도로와 함께 지하철 3호선이 지나는 구간이 많아 고양지역 중앙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 4. 산업

### 화훼산업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고양지역에는 화훼(꽃, 묘목, 분재)를 중심으로 한 근교 농업이 급격히 발달했다. 통일로 주변에는 국내 최대의 화훼단지 조성되었다. 특히 창릉천 주변 인근과 공릉천 부근 비닐하우스에서 대규모의 화훼농가들이 고소득의 화훼산업을 시작했다. 이러한 화훼산업을 도와주기 위해 고양시에는 꽃 전시회, 꽃 박람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호수공원 내에 있는 고양 꽃 전시관은 넓은 대지에 절화관, 자생화관, 분재관 등의 꽃 전시장과 공예품 전시장, 꽃 직매장 등이 있어 명실공히 국내 최대 꽃 생산지임을 자랑한다.

고양에서 집중적으로 재배되는 화훼 특산물은 선인장과 장미이다. 화훼 상설 전시 판매장이 대화동 농수산물유통센터(하나로마트) 안에 있다. 특히 원당동 화훼 단지는 국내 유수의 전문단지로 조성되었다.

### 공예단지

1990년대 초반부터 공릉천 주변 지역인 관산동과 내유동 일대에 들어선 대규모의 공예품 제작단지이다. 주로 탈, 목각, 고목가구 등을 제작하며, 우리나라 최고 품질의 목공예품을 생산하고 있다. 공예품전시관도 운영하고 있다.



원당 화훼단지



화훼단지 내

## 선인장 재배산업

고양시 일대에는 1980년대 후반부터 비닐하우스 등에서 많은 종류의 선인장을 재배하여 수출하고 있다. 특히 송산동에 자리한 선인장시험장에서 연구·개발된 선인장을 일반 선인장 농가에서 대규모로 재배하여 다양한 종류의 색깔과 모양의 선인장을 전세계에 수출하고 있다. 우리 고양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인장을 키워내는 곳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량의 70%를 고양시에서 담당하고 있다.

## 영상산업

고양시는 미래 첨단사업의 육성을 목표로 삼송 신도시 내에 영상·출판·교육·방송을 망라한 첨단 영상산업도 추진하고 있다.

## 5. 자매결연도시(우호교류도시)



### ◇ 자매결연 : 3개국 3개시

- ① 네덜란드 북홀랜드주 헤르워그바르드시 (1997. 5. 20)
- ② 중국 후베이성 치치허얼시 (1998. 4. 21)
- ③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시 (2003. 7. 30)

### ◇ 우호교류 : 5개국 7개시

- ① 중국 산둥성 빈주시 (1997. 1. 21, 2006. 4. 28)
- ② 스페인 카탈루냐주 사바델시 (2001. 2. 19)
- ③ 중국 운남성 곤명시 (2001. 9. 27)
- ④ 멕시코 야쿠아스탈리엔테스주 야쿠아스탈리엔테스시 (2002. 1. 29)
- ⑤ 미국 버지니아주 버지니아비치시 (2005. 3. 28)
- ⑥ 중국 길림성 연길시 (2007. 10. 31)
- ⑦ 몽골 톤드고비 아이막(州) (2009. 5. 27)

제 3 장  
고양시의 역사



## 1. 구석기시대

고양시에 사람들이 처음 살았던 때는 구석기시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일산 신시가지를 개발하기에 앞서 문화유적 발굴조사가 있었는데, 이때 발견된 구석기 시대의 유물은 대부분 석기(돌을 이용한 기구)들로 적게는 한 두 점에서부터 많게는 몇 백 점이 한꺼번에 땅에서 나왔다.

일산동구 마두1동 지역에서 찌개가, 옛 마두3리인 암센타 부근에서는 끌개가, 옛 주엽1리와 2리 지역(새말, 오마리)에서는 몸돌, 찌개 등이 발견되어 고양시에도 구석기시대에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고양시에서 발견된 구석기시대의 유물은 대략 5만년 전부터 7만 5천년 전의 것으로 여겨진다. 출토 유물 중의 일부가 고양시농업기술센터의 농경문화전시관에 보관되어 있다.

고대의 토기(역삼유적 출토)



## 2. 신석기시대

지금으로부터 10,000년 전 신석기시대는 새로운 농사의 시작으로 사람들의 생활이 크게 안정되는 시기이다. 특히 유심히 살펴야 하는 유물이 가와지 범씨이다. 이 범씨는 연대 측정 결과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는데, 처음 발견된 마을의 이름을 따서 가와지 범씨라 부르고 있다. 이 범씨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재배 범씨인데, 홍도동에 있는 고양시농업기술센터의 농경문화전시관에 보관되어 있다. 이 가와지 범씨는 신석기시대의 농경에 관한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일산 신시가지 지역에서는 신석기시대의 새김무늬 토기가 발굴되었으며, 당시 일산동구 지영동과 덕양구 신원동 및 지축동에서는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 토기(줄문토기)가 발견되었다.

## 3. 청동기시대

고양시의 청동기시대 유물은 주로 한강의 하류나 공릉천, 창릉천, 원당천, 장진천 등 하천을 따라 펼쳐진 평야를 앞에 둔 야트막한 언덕에서 발견된다. 이것은 청동기시대 사람들이 농사에 의존한 생활을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인 고인돌은 고양지역에 수십 개가 있었으나 지금은 대부분 없어지고 화정동, 성사동, 향동동 일대에만 일부 남아 있다. 또한 일산 신시가지 지역에서는 주로 토기의 조각들이 발견되었는데 칠흙띠굽입술토기, 쇠뿔손잡이토기, 굽잔토기 등이었다. 특히 주엽동의 새말지역에서는 접아가리토기 조각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청동기 후기에서 초기 철기시대에 걸치는 시기의 토기이다. 이밖에도 여러 곳에서 무문토기(민무늬토기)와 청동기시대의 석기가 발견되었다.



## 4. 삼국시대

현재까지 고조선과 관련된 고양시의 유물이나 역사적 사실 중 크게 살펴보아야 할 만한 것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삼국시대에 이르면 고양시와 관련된



역사적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삼국시대에는 고구려·백제·신라가 한강유역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데, 그 결과에 따라 고양 지역의 지배자도 바뀌게 되었다. 이와 같이 삼국시대를 통해 한강유역은 고대 역사에서 군사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던 곳이었다.

삼국 중 고양시 일대를 제일 먼저 차지한 세력은 백제이다. 백제를 세운 온조가 북한산에 올라 지세를 살피고 도읍을 정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북한산 고성(옛 성)과 그 주변 지역에서 백제의 토기 조각들이 발견되고 있다. 『삼국사기』에는 백제 제4대 개루왕 5년(132년)에 북한산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있다.

그 후 고양지역은 고구려의 광개토왕과 장수왕 때 고구려의 땅이 된다. 고구려는 고양지역에 달을성현과 개백현을 만들었고, 이후 달을성현은 고봉현으로, 개백현은 우왕·왕봉·행주 등의 이름으로 고쳐졌다. 고봉은 지금의 일산동·서구 지역의 옛이름이며, 나머지 이름들은 지금의 덕양구 지역이다. 이때 성저마을 앞 벌판에 토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신증동국여지승람』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으며, 고봉산에 남아 있는 토성도 고구려의 성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후 세력이 크게 성장한 신라는 한강유역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치열한 전투가 여러 차례 벌어지게 된다. 북한산 비봉 꼭대기에 있는 '진흥왕 순수비'에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그 후에도 신라 진평왕 25년(603년) 고구려의 장군 고승이 수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신라의 가장 북쪽 기지인 북한산성을 포위·공격했는데, 이때 진평왕은 친히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한강을 건너 고구려군을 물리쳤다. 문무왕 원년(661년) 고구려·말갈 연합군이 북한산성을 포위하고 20여 일간 치열한 전투를 치렀다. 이렇게 신라의 땅이 된 고양지

역에는 북한산주가 만들어졌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전국을 9주 5소경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 다스렸는데 고양지역은 한산주에 속하게 되었다. 고양지역에 남아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흔적은 행주산성이다. 행주산성의 토성을 처음 쌓은 때는 8~9세기로 여겨지며, 성 부근에서 통일신라시대의 토기와 기와 조각들이 출토되었다.



또한 지축동에 있는 흥국사는 원효대사가 처음 세웠다고 전해지는 1,000년이 넘은 오래된 사찰이다. 그리고 행주외동에는 신라 효공왕 때의 충신 은영의 묘가 있다. 그러나 경주 중심의 통일신라시대에는 고양지역은 주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통일신라 말기에 세워진 고려는 마침내 태조 왕건 때 전국을 다시 통일하게 된다. 고려시대에 고양지역은 양주와 남정에 속한 마을이 되었다가 한양부의 속현이 되는 등의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고려의 도읍인 개성과 가까운 고양지역에는 그 당시의 역사적 모습들이 많이 남아 있다.

흥도동에는 고려청자를 만들던 가마터가 남아 있으며, 공양왕릉과 최영 장군의 묘를 비롯한 고려시대의 무덤이 남아 있다. 또한 고려시대의 주요 세력이었던 행주기씨, 원당동의 왕봉골, 식사동의 대궐고개, 어침이, 어침사 등 여러 인물과 문화재, 땅 이름이 고양지역의 고려시대 모습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5. 고려, 조선시대

1392년 조선왕조가 시작된 후 고양지역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나라를 세운 후 조선 태조는 도성을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기도록 하였는데, 우리 고장은 새로운 수도 한양과 옛 도성인 개성을 연결하는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게 된다. 그리고 중국으로 오가는 사신들의 연행로로 우리 고장을 지나게 되어 고양지역에는 도로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사람의 왕래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태조 3년(1394년)에 고양지역인 고봉에 감무라는 관리를 파견하였다. 그러다가 조선 태종 13년(1413년)에 고봉과 덕양의 이름을 합쳐 '고양' 현으로 이름을 고치고 현감을 두었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597년 전의 일로 비로소 이때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고양이란 이름이 처음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다가 성종 2년(1471년)에 왕의 무덤이 있는 곳(세조의 아들들인 예종의 창릉과 덕종의 경릉)이라 하여 현에서 군으로 승격되었다. 그 후 고양지역에는 왕족이나 지배 양반층의 무덤이 많이 만들어졌으며, 이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땅(사패지)들이 많아지게 된다.

조선 제10대 왕인 연산군은 고양지역을 왕의 사냥터로 만들어 일반 백성은 출입할 수 없는 '금표구역'으로 정하였다. 이로 인해 고양의 농과 묘는 모두 잡초밭이 되었고, 주민들과 관청은 인근의 과주나 양주로 옮겨져 고양지역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게 되었다.

연산군에 의한 금표구역은 중종이 연산군을 몰아낸 사건(중종반정)으로 인해 풀렸고, 고양지역은 다시 사람 사는 곳으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다 임진왜란을 겪게 된다. 1592년 4월에 시작된 임진왜란은 우리나라의 계속되는 패배로 임금인 선조가 수도 한양을 버리고 멀리 의주까지 피난을 가게 되었다. 우리 고양지역은 도읍인 한성과 가까운 지역이라는 점과 한성에서부터 평양·의주를 오가는 길



목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임진왜란을 치르는 동안 대자동에 있던 고양군의 관아 건물도 모두 불타는 등 왜군에 의해 많은 피해를 입었다. 임진왜란 당시 고양지역에서는 커다란 전투가 벌어졌는데, 벽계관 전투와 행주대첩이 그것이다. 그밖에도 석탄 이신의 같은 고양지역 의병장의 활동도 있었다.

## 6. 근대

조선 후기 고양지역의 자세한 모습은 영조 당시 고양군수인 이석희가 편찬하여 1755년에 펴낸 『고양군지』에 잘 나타나 있다(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다). 그 기록을 보면 고양 땅에는 남자 6,785명, 여자 7,076명 등 약 1만 3,800명이 살고 있었으며 8개 면에 3,508호의 집이 있었다. 또한 당시에 고양 땅에서 생산해낸 것은 농산물과 한강에서 잡히는 물고기, 게 등이 대부분이었다. 이외에도 한강 주변에는 갈대밭이 넓게 이루어져 중앙의 관청에서 관원이 나와 관리·감독하였다는 기록도 있다.



그 후 조선조 말기인 조선 고종 32년에 이르기까지 고양 땅은 큰 변화가 없었다. 대한제국 시기에는 고양 땅이 잠시 서울인 한성부에 속해 있다가 이후 경기도에 속하게 되었다. 그리고 1906년 양주군의 신현면이 고양지역에 새롭게 들어와 8개면에서 9개면이 되었다. 1900년대 초반 경의선이 고양지역을 지나게 되어 새로운 상업의 문물이 오가게 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서고 있는 일산장도 이때 생긴 것이다.

그 후 1910년부터 1973년에 이르기까지 60여 년간 지금의 서울시와 고양지역이

서로 그 땅을 주고받으며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옛날부터 있었던 사리대면, 신철면, 원당면, 하도면, 구지도면, 중면, 구이면, 사포면, 송산면 9면 이외에 새로이 경성부로부터 한지면(지금의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일부 지역), 옥(독)도면(지금의 성동구, 송파구 일부), 송인면(지금의 성북구, 동대문구, 노원구, 도봉구 지역), 은평면(지금의 서대문구, 은평구), 연희면(지금의 서대문구, 은평구, 마포구), 용강면(지금의 마포구, 영등포구 일부) 등이 고양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 시기에 고양군은 지금의 서울 강북지역의 대부분을 그 관할구역으로 하였으며, 고양 동에서 1914년 지금의 충청로 부근으로 고양군청을 옮기게 되었다. 지금의 서울적십자병원 자리에 있던 충청로 고양군 청사는 고양 역사상 가장 큰 면적을 관할하던 때로 고양 땅을 밟지 않고는 수도인 서울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다.

1936년 고양군청은 서울 동대문 부근으로 옮겨졌으며 용강면·연희면·한지면 등이 다시 서울지역으로 편입되었다. 1920년대 후반 30년대 초반에는 한강에 대규모의 제방이 쌓여져 지도가 바뀔 정도의 큰 경지정리 작업이 이루어졌다. 제방이 가까워오자 우리 고장을 비롯한 우리나라 전역에는 일제에 의해 잔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많은 고양지역 주민들이 강제 징용, 점진대 등으로 아주 먼 곳에까지 끌려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1945년 민족의 해방과 함께 우리나라는 물론 우리 고장에도 민족의 자유와 해방이 찾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의 해방은 짐차 수도 서울을 거치게 하고 반대로 고양지역의 면적을 줄어들게 만들었다. 조금씩 고양의 발전 계획을 수립할 즈음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인 6·25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 전쟁은 고양지역 부근인 개성에서 시작되어 처음 전투에서 우리 군이 계속 후퇴하여 우리 고장은 매우 큰 피해를 보게 되었다. 특히 고양은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면서 더욱더 큰 피해를 보게 되었다. 당시의 이 큰 아픔을 볼 수 있는 곳이 여러 곳 있지만 덕이동의 충혼탑과 태극단 묘역, 금정굴 등이 그 대표적인 장소이다.

전쟁 후 고양군의 동남쪽 관할 구역 대부분이 수도 서울에 들어가게 되었으나 군청, 경찰서, 우체국 등은 서울에 그대로 있어 불편이 컸다. 이에 1961년 고양군청이 지금의 서울 동대문운동장 부근 을지로6가에서 지금의 덕양구 성사1동사무소 자리에 잠시 있다가 1963년 지금의 시청 자리인 주교동으로 옮기게 되었다. 그리고 195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까지 한강 주변의 화전·지도(능곡)·중면(일산) 송포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농지정리 및 전천후 농업개발사업이 이루어져 고양시 최대의 곡창지대로 바뀌게 되었다. 다른 바움에서도 60~70년대에 새마을사업이라 하여 도로가 새로 닦여지고 지붕이 바뀌는 등 그 모습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 7. 현대

1980년대 중반부터는 고양지역에도 본격적인 도시화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주교·성사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농곡·벽제·원일산 지역에도 단독·연립주택·주공아파트 등이 들어서면서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소규모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1989년 일산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되었다. 이 대규모의 신도시 개발은 역사를 크게 뒤바꾸는 사건이 되었다. 수백년 간 유지되어온 마을·산·나무·들판 등이 사라지고 새로운 문화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 것이다. 고양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향을 지키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새로운 도시의 개발은 고양지역을 수백년 간 이어온 전통적인 농업지역에서 새로운 현대도시로 바뀌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와 함께 추진된 1990년대 초반의 화정·신원당·행신·농곡·중산·탄현지구의 개발에 따라 고양지역의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였고, 90년대 후반 2000년대에 도 도시화 작업은 꾸준히 진행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 개발의 속도는 점차 둔화되고 환경, 문화, 예술, 복지, 첨단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이에 따른 다양한 사업과 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현재에는 약 94만여 명의 큰 도시로 성장하게 되었다.



## 8. 고양의 미래

21세기 초반에 추진되고 있는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공사, 스포츠몰, 아쿠아리움, 한류월드, 차이나타운, 브로멕스 사업은 고양시의 모습을 크게 바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고속철도(KTX)의 건설과 경의선의 복원 등으로 고양시는 이미 교통의 큰 혁명을 가져왔다. 또한 남북교류의 확대와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거점도시로도 더욱 크게 성장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고양시가 더욱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가 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



제 4 장  
고양 문화의 향기





## 1. 고양시의 문화유산

## 송포 백송 (천연기념물 제602호)

송포의 백송은 흰 소나무로 숲이 3개이다. 중국이 원산지이며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나무이다. 일산서구 송산동에 있는 이 백송은 나무의 줄기가 흰색으로 멀리서 보더라도 다른 소나무와 구분되는 매우 독특하고 잘 생긴 소나무이다.

현재 나무의 키는 10m, 나무 둘레는 2.9m, 나무의 나이는 무려 550년이나 되었다. 이 백송은 조선 세종 때 북쪽의 여진족을 물리치고 6진을 개척한 김종서 장군의 아래에서 근무하던 최수원 장군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심었다고 전해오고 있다. 이 나무의 흰색과 녹색이 서로 어우러져 예부터 승려와 학자들이 신성한 나무라고 여겨 궁이나 사찰, 무덤과 정원에 심어왔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나무를 순결하고 충직한 선비 정신의 상징으로 여겨왔는데 그 이유는 이 나무가 늘 깨끗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고장에서도 이 나무의 소중함과 가치를 인정하여 고양시를 상징하는 나무로 정했다.



## 태고사 원증국사 탑비 (보물 제611호)

북한산 태고사 법당 바로 옆에 위치한 원증국사의 탑비다. 원증국사 보우(1301~1382)는 고려 후기의 인물로 13세에 스님이 되어 회암사의 광지선사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으며, 이후 여러 사찰을 다니면서 배움에 전념한 유명한 대사이다. 46세 때 중국에 다녀왔는데 이후 다시 중국에 갔을 때에는 중국 황제인 순제(順帝)가 그 소식을 듣고 옷을 내려주었다고 한다. 공민왕의 스승이 되기도 하였으나 곧 소설사로 들어가 지냈고, 우왕 8년(1382)에 이 절에서 돌아가셨다. 이 비석은 고려 우왕 11년(1385)에 세워졌으며, 비문은 당대의 문장가 목은 이색 선생이 짓고 명필 권주가 글씨를 썼다. 비는 거북발침돌 위로 비 몸을 세우고 머릿돌을 얹은 모습이다.

거북받침들의 머리는 용의 머리를 하고 있으며, 등에는 길쭉한 육각무늬를 새겼다. 머릿돌에는 구름과 용의 무늬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다.

#### 태고사 원증국사 탑 (보물 제749호)

고려 후기 원증국사 보우의 사리탑으로, 모두 3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받침의 맨 밑단이 되는 4각의 아래 받침들은 각 면과 모서리와 가운데에 기둥 모양의 조각을 새겼으며, 그 윗면에는 굽은 선으로 연꽃 무늬를 새겨 두었다. 8각의 가운데 받침들은 각 모서리에 둥근 기둥을 새긴 후 면마다 큼직한 꽃 무늬를 새겨 장식하였다. 원형에 가까운 윗받침들은 굽은 선으로 연꽃을 새겼고, 꽃잎 안에 고사리무늬를 두었다. 고양시에서는 보기 드문 사리탑으로 그 가치가 매우 높다. 몸돌은 둥근 모양으로 위쪽이 좁아져서 지붕돌 밑면에 들어맞게 되어 있다. 지붕돌은 처마가 거의 수평을 이루며, 각 귀퉁이마다 꽃 장식이 투박하게 솟아 있다. 지붕돌 위로는 머리 장식이 있다.



#### 영주산성 (사적 제56호)

임진왜란 때 충장공 권율 도원수의 영주대첩으로 널리 알려진 곳으로, 흙을 다져서 쌓은 토축산성이다. 성을 쌓은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험한 절벽을 이용하면서 펼쳐지는 넓은 평야를 볼 수 있는 것은 삼국시대 초기의 산성 형식과 같다. 현재 꼭대기를 둘러싼 작은 규모의 안쪽성과 골짜기를 에워싼 외성의 2중 구조를 하고 있다. 남서쪽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동남쪽으로는 창룡천이 산성을 에워싸고 돌아, 자연적으로 성을 방어하는 해자의 구실을 하고 있다.



이 지역은 삼국시대 초기에 백제의 땅이었으며, 서해안과 연결된 한

강 수로가 있어서 남북 교통의 요충지대이다. 성 안에서는 삼국시대의 토기조각을 비롯하여 통일신라시대의 유물이 많이 나오고, 물고기뼈 무늬를 새긴 기와조각도 발견되고 있어서 고려시대까지도 사용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주대첩은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로, 1593년(선조26년)에 일본 왜병과의 전투에서 성 안의 부녀자들이 치마에 돌을 날라주고 병사들도 비격진 천뢰, 화차, 신기전기 등 최신무기를 사용해 큰 승리를 거두었다. 당시 부녀자들의 공을 기리는 뜻에서 행주라는 땅이름을 따서 '행주치마' 라고 하였다고도 한다.

이 산성은 한강 유역에 있는 다른 산성들과 함께 삼국시대 이후 중요한 방어요새의 역할을 한 곳으로, 현재 1603년에 세운 '행주대첩비' 가 남아 있으며, 권율도원수를 모시는 충장사를 비롯해 대첩기념관, 충의정, 충훈정, 권율 동상 등이 있다. 매년 수십만 명이 관람하는 곳이며 행주문화제, 행주대첩제도 이곳에서 열리고 있다.

#### 북한산성 (사적 제162호)



삼국시대의 성곽인 덕양구 효자동의 북한산성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산성 중에 한 곳이다. 행주산성과는 달리 돌로 쌓은 석성으로 총 둘레가 12km에 이르는 산성이다. 이 산성이 처음 쌓여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1,500여 년 전의 일로 백제가 고구려의 세력을 막기 위해 만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남아 있는 대부분의 성곽은 지금으로부터 300여 년 전인 조선조 숙종 때 쌓여진 것이다. 성곽은 임진왜란·병자호란의 두 전쟁을 겪으면서 위급할 때 수도 서울을 지키기 위해 대대적으로 만들게 된 것이다. 산성은 전국 곳곳에 있던 스님들이 만들었는데 성 내의 중흥사 등 사찰에서 머물렀다. 성곽은 주로 훈련도감, 어영청, 급위영 등 세 개의 기

관이 분담하여 축성, 관리했으며 창고, 행궁, 우물 등이 성 내에 만들어졌다.

본래 산성의 서쪽 방향인 대서문만 복원되어 있었으나 최근 고양시·서울시 등에서 대대적으로 복원작업이 이루어져 대동문·대남문·중성문 등이 새롭게 지어졌다. 우리 고장에는 이 외에 토성인 고봉산성이 일산동구 성석동·일산동에 위치하고 있다.

#### 고려 공양왕릉 (사적 제91호)

덕양구 원신동 왕릉골에 위치한 고려 공양왕릉은 우리 고장에 하나뿐인 고려 왕릉이다. 현재 능은 고려의 마지막 34대 왕인 공양왕과 왕비 순비노씨가 쌍릉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왕릉의 앞에는 능 비석 3기와 상석 2기 그리고 문·무관석 및 장명등, 석수 1기가 있다. 이 중에서 능 비석은 이곳이 누구의 무덤인지 알려주는 표석이며, 상석은 제례행사시 제물을 놓는 돌이다. 특히 봉분 주위의 석물들은 그 크기나 모양, 조각수법에서 고려말, 조선초의 양식을 그대로 갖추고 있다.



이 공양왕릉은 조선시대의 능과는 달리 매우 그 규모가 작은 것이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능 앞 50m 지점에는 공양왕이 왕비와 함께 빠져 죽었다는 연못이 있으며 부근의 왕릉골, 식사동, 대궐고개는 모두 공양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땅 이름이다. 한편 우리 고장 이외에도 강원도 삼척시와 고성에도 공양왕릉이 있어 당시 사회가 매우 어지러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고양시의 공양왕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공양왕은 조선을 세운 이성계 등에게 왕으로 추대되어 마음대로 정치를 하지 못하다가 4년 만에 간성과 삼척으로 쫓겨간 뒤 50세의 나이로 돌아간 비운의 왕이었다.

#### 서오릉 (세계문화유산, 사적 제198호)

서오릉은 우리 고장에서 가장 큰 규모의 왕릉이며, 2009년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왕이 살고 있는 경복궁의 서쪽에 5기의 능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서오릉 내에는 창릉·홍릉·경릉·익릉·명릉이 있는데 사적 제 198호로 덕양구 용두동에 위치하고 있다.



조선조 초기 경릉의 조성으로 시작된 서오릉은, 문화유적을 둘러보는 교육의 현장과 함께 시민의 공원 역할을 하고 있는 명승지이다. 이곳에 있는 창릉은 조선조 8대 왕인 예종과 그의 부인인 안순왕후 한씨의 능이며, 경릉은 추존된 덕종과 그의 부인인 소혜왕후 한씨, 익릉은 숙종의 부인인 인경왕후 김씨, 홍릉은 영조의 부인인 정성왕후 서씨, 그리고 명릉은 숙종과 그의 부인인 인현왕후 민씨와 인원왕후 김씨의 무덤이다. 서오릉 내에는 이외에도 수정원과 순창원 그리고 희빈장씨의 묘인 대빈묘가 있다. 이 다섯개의 능 중에서 현재 명릉, 창릉, 홍릉은 비공개지역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었다가 해제되어 옛 모습이 잘 남아 있다. 또 익릉과 경릉 주변에는 소나무가 잘 보존되어 있어 현장 학습시 휴식터로도 이용되고 있다.

#### 서삼릉 (세계문화유산, 사적 제200호)

이 능은 덕양구 원신동에 위치한 사적 제 200호인 문화재이다. 총 면적 22만㎡의 이 능은 서오릉과 함께 우리 고장의 대표적인 능이다. 서삼릉 내에는 조선조 제25대인 철종과 그의 부인인 철인왕후 김씨의 예릉을 비롯해 제12대 왕인 인종과 그의 부인 인성왕후 박씨의 능인 효릉, 그리고 중종의 부인인 장경왕후 윤씨의 능인 희릉이



위치해 있다. 이 중에서 희릉과 예릉은 공개되고 있으나 효릉과 회묘, 공주·옹주묘, 소경원 그리고 태실 등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본래 서삼릉은 지금의 면적보다 훨씬 더 컸었다. 그러나 골프장, 군부대, 목장, 대학 등이 들어서면서 점차 그 면적이 줄어들어 지금은 옛 모습의 약 1/10 정도로 그 크기가 작아졌다. 이러한 잘못을 고치기 위해 요즈음 서삼릉을 옛 모습으로 찾기 위한 서삼릉 되살리기 운동 및 정부 차원의 왕릉 복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 흥국사

흥국사는 고양시의 전통사찰 중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사찰이다. 덕양구 효자동 철골에 있는 이 사찰은 신라 문무왕 때인 661년에 원효대사가 처음 절을 지었다는 유서 깊은 곳이다. 사찰로 들어가는 일주문을 시작으로 하여 주위의 느티나무, 상수리나무, 약사전, 미타전 등에서 이곳이 오래된 사찰임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사찰 내에는 조선조 명조 때에 지어진 고양시 최고의 건축물인 흥국사 약사전과 김홍도가 그린 것으로 여겨지는 극락구품도, 나한전·약사전 후불탱화 등 많은



문화유산이 보존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매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커다란 괘불을 걸고 큰 법회를 열고 있다.

## 월산대군의 묘와 신도비

고양시 향토유적문화재 제1호인 월산대군의 묘와 신도비는 덕양구 원신동 능골 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조선조 초기의 무덤으로 조선시대의 묘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곳이다. 이 묘는 왕릉이 아니면서도 그 크기가 매우 크다. 또 이곳에는 부인 박씨의 봉분이 월산대군의 뒷편에 있는 것도 특이하다. 묘소 주변에는 망주석, 문인석, 신도비 등 석물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상석 뒤에는 아름다운 구름 무늬의 묘비석도 세워져 있다. 묘소 앞 10m 지점에 세워져 있는 신도비는 이 묘소의 주인공인 월산대군의 지나온 생애와 업적 등을 정리·기록한 것으로 뒷 부분은 용



일산대군 묘

이 새겨져 있고, 중간에는 비문 글씨가, 아래에는 받침석이 있다. 특히 이 비석은 두전(제 목 글씨)을 달과 산 모양의 상형문자를 쓴 것이 흥미롭다.

월산대군은 조선조 제9대 왕인 성종의 친형으로 시와 문장이 뛰어났으며, 그 부인은 승평부부인 순천박씨이다.

#### 최영 장군 묘

봄과 가을이면 그 경치가 좋은 곳이 최영 장군의 묘소이다. 덕양구 대자동 대자골마을에 있는데 현재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잘 보호되고 있다. 묘소의 입구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쌓여진 조그마한 돌무덤이 있다. 이 돌무덤은 최영 장군의 묘소를 찾은 많은 사람들이 장군께 소원을 빌면서 만든 것이다. 그만큼 최영 장군은 명장, 충신, 청백리로 알려진 이름이며 무속인들은 장군을 신으로 모시기도 한다. 오늘날 청렴했던 그의 생애에서 공직의 표상으로 삼기도 한다.

장군의 묘는 사각형으로 생겼는데, 묘소의 뒷편에 장군의 아버지 최원직 선생의 묘소도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덤에 잔디가 나지 않는 붉은 무덤이었는데 지금은 예쁜 잔디가 자라고 있다. 최영 장군은 고려조 후기의 충신으로 끝까지 고려에 충성을 다하다가 조선을 개국하려는 여러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 인물이다.

#### 일산 방가시 초가

일산동구 정발산동 방가시마을에 위치한 이 초가는 고양에서 유일하게 문화재로 보존되어 있는 초가집이다. 현재 경기도 민속자료 제8호로 지정된 이 집은 약 150여년 전에 처음 지어진 이후 몇 번에 걸쳐 고쳐짓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 집의 주요 재료들은 예전 이 부근 마을의 특산물인 밤나무를 이용했으며 마루 앞의 앞마당이 움푹 패이고 지붕 또한 토아리 모양을 하고 있는 독특한 모양의 초가 건물이다. 이 집에는 안방, 건넌방, 사랑방과



방가시 초가

함께 헛간, 광, 부엌, 장독대 등이 매우 소박하고 서민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또한 나쁜 기운이 집에 출입하는 것을 막아주는 엄나무가 때문에 있는 등 곳곳에 우리 고양지역의 민속, 풍속을 볼 수 있다. 이 초가는 1990년대 초반에 시작된 일산 신도시 개발의 과정 속에서도 보존되어 일산지역의 명소가 되고 있다. 초가의 아래에는 일산지역의 농경유물 500여 점을 전시하고 있는 고양시 민속전시관이 있어 학생들의 교육현장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 강매동 석교

덕양구 행신2동 강매동 강고산마을에 위치한 이 돌다리는 고양시에 현재 남아 있는 돌다리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지금은 총길이 17m, 폭 3.5m, 높이 4m 정도인데 예전 일산·송포·지도(능곡)지역 사람들이 걸어서 서울을 오갈 때 건너던 다리이다. 이 돌다리는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데, 고양시의 대대적인 보수공사로 원형이 잘 남아 있다. 옛 기록을 보면 예전에는 나무로 만든 다리로 본래 이름은 '해포교'였다고 한다. 그러다 1920년에 나무다리를 본뜬 돌다리로 만들고 이 지역의 마을 이름을 따서 강매동 석교라 했다고 한다. 지금도 다리에는 강매동 석교라는 글씨가 뚜렷이 남아 있다. 이 다리가 놓인 하천은 창룡천으로 이 다리를 지나 1km 아래에서 한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현재 향토유적 제33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강매동 석교

### 고양 송포 호미걸이

고양시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재로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되어 있다. 호미걸이는 일명 '호미씻기'라고도 부르는데, 농사일을 하면서 마지막 김을 다 매고 난 뒤 올 농사의 큰 일은 모두 끝났으니 호미를 걸어둔다는 데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 이 호미걸이는 매년 음력 7월 7일을 전후한 시기에 시작하는데 처음에 산에 올라 제사를 지내는 상산제를 시작으로 하여 마을사람이 다 함께 하는 대동고사, 집집마다 노는 대동놀이, 유가제 등으로 이어진다. 호미걸이는 독특한 여

러 종류의 농요소리와 춤동작 그리고 서로 호흡이 잘 맞는 가락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재로 길이 보존해야 하는 소중한 무형문화재인 것이다.

#### 원흥동 신라 말 고려 초기 청자요

덕양구 흥도동 나무드머리마을에 위치한 이 청자요지는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 64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곳은 신라말·고려초에 만들어진 가마터와 도자기 퇴적터미의 유적 문화재이다. 이 가마터는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 도자기 사학자가 처음 발견했다. 이 가마터는 경기도 용인의 가마터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청자를 굽던 유적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곳 전자산 기슭의 가마터에서는 가마에 쓰인 벽돌을 비롯해 청자를 보호해주는 갑발, 그리고 청색의 푸르름이 보이는 청자 파편이 발견되고 있다. 고려시대에 이곳에 '전자산소'라는 조그마한 행정구역이 나오는데 아마 이곳 원흥동에서는 고려청자를 전문적으로 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 흥국사 극락구품도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에 있는 흥국사에는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43호인 극락구품도라는 그림이 있다. 전체 그림의 크기는 가로 214cm, 세로 154cm 규모이며, 조선조 후기의 그림 양식을 가지고 있다. 이 그림의 내용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극락 세계의 모습을 상품, 중품, 하품 등 총 9품으로 나누어 그린 그림이다. 그림에는 많은 수의 사람과 집, 소나무, 자유로이 노니는 동물, 평화로운 모습 등이 자세하게 그려져 있다. 이 그림은 고양지역 일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불교그림이라는 점과 당대의 명 화가인 김홍도의 그림으로 알려져 있어 그 가치가 매우 큰 문화재이다.

#### 연산군 금표비

덕양구 고양동 간촌마을에 있는 이 비석은 현재까지 발견된 국내에 하나밖에 없는 연산군 금표비이다.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88호인 이 비는 높이 147cm의 크기로 재질은 화강암으로 되어 있다. 금표비는 본래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서 세우는 비석으로 우리나라에는 소나무 보호구역이나 왕릉, 유배지 등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곳 대자동 연산군 시대의 금표비는 사냥과 놀이, 궁궐의 목장 등으로 쓸 목적으로 세웠다. 또한 그 금표구역도 다른 왕의 금표구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고 큰 면적을 가졌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죽인다고 금표에 써어 있다. 이곳 대자동의 금표비에도 고양군 지역을 모두 없애고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은 목을 쳐

죽인다는 내용의 비문이 쓰여져 있다. 이 금표비는 연산군이 조선조 최대의 폭군임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이다.

### 고양향교

덕양구 고양동에 위치한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69호인 고양향교는 옛 우리의 교육기관이다. 향교는 예전 나라에서 세운 공공 교육기관으로 각 지역의 서원, 서당과 함께 공부하던 곳으로 합촌 최고의 교육과정을 가르쳤다. 이곳에서는 주로 명륜당을 중심으로 교육 기능을 맡았고 대성전을 중심으로는 제사 기능을 하곤 했다. 이외에도 요즈음의 도서관, 토론장, 기숙사 등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향교는 입구인 의삼문과 교실인 명륜당, 기숙사의 역할을 하는 동재·서재, 제기 및 제관 옷이 보관되어 있는 전사청, 공자와 그 제자를 모신 대성전, 우리나라의 유명한 선현들을 모신 동무·서무가 향교 안에 있다. 한편 이곳 향교에서는 매년 음력 8월 27일에 석전대제라는 큰 제사를 지내며, 이외에도 중요 행사시 고유제를 지내고 있다.

### 북한산성 행궁지

서울 도성의 핵심인 경복궁의 진산, 북한산의 한 가운데에 있다. 행궁은 임금이어무는 옛날 궁궐이다. 덕양구 북한동 태고사와 대성암 사이의 골짜기에 있는 이



행궁지는 총 9천㎡에 이르는 큰 건물터이다. 이 행궁은 조선조 숙종 때 북한산성을 완성하고 도성인 한성에 위급한 일이 생기면 왕과 함께 왕족, 신하들이 피난을 와 지내는 곳으로 지어진 건물이다. 그래서 이곳에는 정전과 좌우각방, 대문, 수라전, 대전 등 모든 건물을 합쳐 총 130여 간의 큰 건물터가 남아 있다.

본래 일제 강점기 시대 이전만 하더라도 이곳에 건물이 남아 있었으나 일제 침략, 6·25 전쟁 등으로 모두 훼손되어 지금은 그 터만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러나 당시의 모습이 사진과 옛 지도로 남아 있어 복원작업을 가능하게 해 주고 있다. 사적 지정과 함께 문화재청,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장기적으로 문화재의 발굴 및 원형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북한산 백운대 3·1 운동 암각문

고양시에서 가장 높은 곳인 북한산 백운대 정상에 새겨진 암각문이다. 암각문이란 바위에 새긴 글씨를 말하는데 우리 고장 곳곳에는 이러한 암각문을 쉽게 볼 수 있다. 이 암각문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우리의 선조들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일으킨 3·1 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후대에 길이 전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경·천·애·인이란 글씨를 네 모퉁이에 쓰고, 그 안에 독립선언문은 기미년 2월 10일에 최남선이 작성하였으며 3월 1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해주 사람 정재용이 읽고 만세를 불렀다는 내용을 새긴 것이다. 이 글을 새긴 정재용은 해주 출신의 독립운동가로 3·1 운동에 불을 당긴 인물이며 약 3년에 걸쳐 평양감옥에서 옥살이를 하였다.

## 표로 본 문화재 지정 현황 (2012. 9. 31 현재)

### ● 지정 문화재 : 46점

계	국가지정문화재							등록 문화재	경기도지정문화재					
	소계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 기념물	중요 무형 문화재		소계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	기념물	민속 자료	문화재 자료
46	14	·	2	7	1	2	2	2	30	12	3	5	1	9

### ● 향토 문화재 : 55점

### ● 전통 지정 사찰 : 7개소

### 지정 문화재 현황 (국가, 도지정 46점)

유형	명칭	소재지
보물 제611호	태고사원종국서첩비	고양시 덕양구 복현동 산15
보물 제748호	태고사원종국서첩	고양시 덕양구 복현동 산15
사적 제58호	정주신성	고양시 덕양구 정주동 산28
사적 제144호	벽제금지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5-1
사적 제162호	복현신성	고양시 덕양구 복현동 산9-1 외
사적 제191호	고개성왕릉	고양시 덕양구 평암동 산65-C, 산65-B
사적 제198호	서오릉	고양시 덕양구 교동동 산30-1
사적 제200호	서성릉	고양시 덕양구 평암동 산58-4
사적 제479호	복현신성영공지	고양시 덕양구 복현동 169
경승 제10호	삼각산	고양시 덕양구 복현동 산1-1
천연기념물 제90호	고양출송벽속	고양시 일산서구 적곡동 산22
천연기념물 제202호	후루대(단정현)	고양시 일산동구 장정동 908
중요무형문화재 제102호	배첩장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45-2 오니태교집425
중요무형문화재 제114호	별화장	고양시 덕양구 대저동 243-13
유형문화재 제234호	정주대첩비(구비,중간비)	고양시 덕양구 정주동 산28-1 외
유형문화재 제272호	복현신성굴터(간격기)	고양시 덕양구 복현동 132
유형문화재 제143호	고양동국사국학자유물	고양시 덕양구 지족동 203
유형문화재 제198호	고양동성남원(고사부도)	고양시 덕양구 복현동 204
유형문화재 제189호	고양동국사유물	고양시 덕양구 지족동 20
유형문화재 제190호	고양동사목(사리사리문)	고양시 덕양구 복현동 270
유형문화재 제215호	불광사(경주대왕사리사리)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477
유형문화재 제216호	옥경암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477
유형문화재 제217호	죽상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477
유형문화재 제240호	수목부처명동대왕불모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477
유형문화재 제241호	지운경통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477
유형문화재 제242호	담어대사관신본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477
유형문화재 제22호	고양솔로초미갈이	고양시 덕양구 추곡동 603-1
유형문화재 제31호	공기소리(북원어갈이)	고양시 덕양구 보림동 638-8
유형문화재 제43호	금문장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283-31
기념물 제23호	최명정묘	고양시 덕양구 대저동 산70-2
기념물 제50호	유왕정묘	고양시 덕양구 복현동 698
기념물 제136호	복현신성총서지	고양시 덕양구 복현동 299
기념물 제193호	고양죽신물수대지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산34
기념물 제195호	고양벽성신유적	고양시 일산서구 평암동 760-22 외 3필지
건축자료 제8호	일산동기서초가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동 1153
문화재자료 제57호	현미선종국서첩사본	고양시 덕양구 지족동 203
문화재자료 제64호	전통수신성(고개성)기초지	고양시 덕양구 현동동 산28
문화재자료 제69호	고양향교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386
문화재자료 제71호	정주서원지	고양시 덕양구 정주동 160-1
문화재자료 제79호	정신대군묘당	고양시 덕양구 신현동 407
문화재자료 제88호	연안군사(대왕묘비)	고양시 덕양구 대저동 산10-2
문화재자료 제104호	고양동국사(고개성)유물	고양시 덕양구 지족동 203
문화재자료 제114호	고양복현신성사지	고양시 덕양구 복현동 169
문화재자료 제157호	경사정	고양시 덕양구 대저동 268

### 향토 문화재 현황 (고양시지정 55점)

유형번호	명칭
제1호	정신대군묘일신도비
제2호	성남대군묘일신도비
제3호	계원군묘일신도비
제4호	이성군묘
제5호	광안군묘일신도비
제7호	미천부선생묘일신도비
제8호	민순선생묘일신도비
제9호	이무선생묘일신도비
제10호	김명원선생묘일신도비
제11호	정지문선생묘
제12호	김전선생묘일신도비
제13호	홍마상선생묘일신도비
제14호	이신익선생묘일신도비
제15호	유어형선생묘일신도비
제16호	이지신선생묘일신도비
제17호	기존선생묘
제18호	김주신선생묘
제19호	박세영선생묘일신도비
제20호	박대립선생묘일신도비
제21호	한계미선생묘일신도비
제22호	기견선생묘일신도비
제23호	기림선생묘
제24호	김홍집선생묘
제25호	한규선생묘
제26호	박홍형묘
제27호	김지선생묘
제28호	류진홍선생묘일신도비
제29호	류형선생묘일신도비
제30호	류구선생묘
제31호	류경선생묘
제32호	북한산3-1(모듬암지문)
제33호	김매동지교
제34호	한미선종국사사한천
제35호	홍자통박태성정려비및묘
제36호	도내동은차말어축선생묘
제37호	삼화수교차말묘
제38호	성사동관희선생묘
제39호	도내동어석한천대비
제40호	홍종당선종일신차정
제41호	정말신도당
제42호	상석전발두래래
제43호	원사신신도비및묘소
제44호	익령군이치묘소
제45호	이규형묘비문
제46호	고양법화어니의상
제47호	동신동비석
제48호	백석동현왕제
제49호	회정공성어묘소
제50호	회정공이숙묘소
제51호	김지남비및묘
제52호	신현동익영묘비
제53호	이천사서묘
제54호	이유형묘
제55호	홍윤길묘
제56호	국사봉지석묘
기지정	지림산차석묘
미정	장의동홍자말어축묘현판

## 2. 고양시의 명승지

### 호수공원

호수공원은 일산동구 장항동, 일산서구 주업동 일대에 걸쳐 있는 유명한 공원이다. 이 공원은 약 110만㎡에 이르며 중앙의 일산호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매우 다양한 아름다운 공원이 있다. 공원의 가장 남쪽에 있는 인공폭포를 비롯해, 예수교란 아름다운 나무다리, 다양한 전시·문화공간인 고양 꽃 전시관, 주재광장, 한울광장, 약초섬, 자연학습장, 전통공원, 여러 곳의 정자, 천연기념물인 두루미 등이 있다.



이곳은 특히 세계 꽃 박람회를 비롯해 고양 꽃 전시회 등이 열렸으며, 곳곳에 아름다운 꽃들과 수많은 희귀식물들이 자라고 있다. 호수 내에도 많은 물고기와 높이 100m의 커다란 고공폭포가 있다. 호수공원은 주변에 3곳의 지하철역이 있고 서쪽으로 연결된 자유로와 근접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우리 고장의 명소이다.

본래 이곳은 공원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일산을 대표하는 큰 들판이 있던 곳이다. 이곳에서는 품질 좋은 쌀이 생산되던 곳으로 지평선이 보일 정도로 매우 큰 들판과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들판과 마을이 있던 자리의 흙을 퍼내어 이곳에 동양에서 제일 큰 인공호수를 만들어 공원을 만들게 된 것이다.

호수공원에서는 봄부터 가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의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리고 있어 늘 많은 사람들이 다니며 부근의 사람들은 아침운동, 산책, 나들이 장소



로 이용해 고양사람들이 아끼는 명소이다. 공원 내에 화장실 전시관, 선인장 전시관 등이 만들어졌다.

#### 중남미 문화원(박물관, 미술관)

덕양구 고양동 향교마을에 있는 아시아에 하나 밖에 없는 중·남미 아메리카의 역사·문화박물관이다. 현재 우리 도에서 지정한 테마박물관이기도 하다. 이 문화원은 정문 오른쪽의 미술관과 왼쪽의 박물관, 야외전시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최근 이곳에 조각공원이 만들어졌다. 박물관 안에는 세미나실, 휴게실, 전시실 등이 있으며 건물 모두가 중남미에 온 느낌을 줄 정도로 훌륭하고 멋진 건축물이다.

이 곳 전시실 안에는 중남미 지역에서 수 십년 간 수집한 수백여 점의 유물이 있다. 많은 종류의 민속말을 비롯해 생활용품, 돌 재질의 가면, 조각품, 그림들로 평소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아즈텍·마야·잉카문명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이곳에는 중남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전시장이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중남미 지역의 문화를 느끼게 하고 있다. 한편 넓은 정원에 전시된 많은 조각품과 목련, 진달래, 철쭉들이 어울려 박물관, 문화원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다.

#### 북한산 국립공원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과 서울시·양주시 등에 걸쳐 있는 우리 고장에 하나 밖에 없는 국립공원이다. 총 면적이 약 300만㎡이 넘는 정도로 큰 규모이며, 우리나라의 여러 국립공원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이다.

북한산은 해발 836m의 백운대를 중심으로 하여 크고 작은 산봉우리 30여 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 공원은 우리 고장 말고도 서울시, 양주시에도 걸쳐 있어 주말 등 휴일이면 수만여 명의 시민들이 등반, 산행을 하며 수도권 제일의 국립공원으로 알려진 곳이다. 이 공원에는 산다람쥐, 족제비 등의 많은 산짐승과 함께 소나



북한산 국립공원

무, 상수리나무, 자작나무, 단풍나무 등이 자라고 있는 고양지역 생태계의 보고이다. 산의 큰 봉우리들은 대부분 화강암의 큰 바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암절벽이 많아 매우 아름다운 산이다. 주요 봉우리로는 백운봉·인수봉·노적봉·원효봉·의상봉·보현봉·문수봉 등이 있다. 유명한 계곡으로는 백운계곡·태고사계곡·도선사계곡 등이 있고 상운폭포·옥녀폭포·비석거리폭포 등도 있다.

현재 북한산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북한산성 내 마을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북한산성 행궁지 문화재 조사 이후 휴식과 공원의 북한산이란 이미지에서 문화유산의 소중함이 새로이 부각되고 있다.

### 선인장 시범장

일산서구 송산동에 있으며 선인장을 개발·연구·시범하는 곳이다. 선인장을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신종종을 개발하는 곳은 우리나라에서 이곳 한 곳 뿐이라고 한다. 이곳에는 10여 개의 유리온실이 있는데 각 온실마다 수백여 종류의 선인장이 자라고 있다. 선인장의 색도 화려하고 예쁘지만 그 모양도 비슷한 것 없이 매우 특이하게 생겼다. 특히 손톱만하게 작은 '이부인' 이란 선인장과 빨간색의 '아침' 이란 선인장이 시민들에게 인기가 좋다.

새로이 개발된 선인장과는 달리 아주 옛날부터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선인장도 많이 있다. 먹을 수 있는 선인장, 독성의 진액을 가지고 있는 큰 선인장, 그 크기가 3m 이상 자라는 선인장, 옆으로 크게 자라는 선인장도 있어 온갖 선인장을 볼 수 있는 식물원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한다. 4~5월에는 선인장의 가지 사이로 빨강·노랑의 꽃이 피기도 한다. 이곳에서 연구·개발된 선인장은 일반 농가에 보급되어 네덜란드를 비롯한 화훼 선진국에 대규모로 수출된다.

### 고봉산 공원

일산동구 중산동과 고봉동 사이에 위치한 고봉산은 우리 고양의 대표적인 산으로 주변에 넓은 자연공원이 만들어져 있다. 해발 208m이며 산 정상에는 군 시설이 있어 오를 수 없으나 장사바위, 헬기장 등에서는 주변의 여러 마을을 내려다 볼 수 있다. 고봉산의 서쪽으로는 중산마을이 있어 많은 시민들이 이곳 고봉산을 찾고 있다.

이 산의 동쪽 기슭에는 물 맛 좋은 약수터가 있고 또 숙종의 후궁이었던 희빈장씨의 아버지인 장경의 묘소와 신도비, 조선조의 유명한 성리학자 추만 정지운의 묘와 비, 고양8현의 한 분인 모당 홍이상의 묘와 신도비, 만경사, 영천사 등이 있어 많은 이야기가 있는 곳이다. 소나무, 참나무, 느티나무가 많으며 가을이면 탐스러운 밤이 열리는 밤나무 단지도 있다. 또 주변에 두꺼비바위, 벼락바위, 장사

바위, 용바위, 고추바위, 붙임바위, 여근바위 등이 곳곳에 있다. 시원한 가을 저녁에 이곳에서 보는 한강의 노을 경치는 유명한 경승으로 알려져 있다. 고봉산 누리길의 개풍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 SBS 드라마 제작소

한천동에 위치한 SBS 서울방송의 드라마 제작소, 야외 세트장이 있는 곳이다. 넓은 면적에 드라마 실내 세트장, 일반 오락·교양 스튜디오, 분장실, 의상실, 소품실 등이 있다. 첨단조명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방문할 때마다 그 모습이 달라지는 흥미로운 곳이다. 실내 스튜디오 북쪽에 있는 야외 촬영장에는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거리가 만들어져 있다. 앞에서 보면 너무도 멋진 건물이 뒤에서 보면 그저 임시로 만든 건물처럼 앞모습과는 다르게 초라하게 보이곤 한다. 촬영이 없거나 방송에 큰 지장이 없는 한 단체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스튜디오를 둘러보게 하고 있다.

#### 테마 동물원 쥬쥬

덕양구 원신동에 있는 파충류 및 포유류 동물이 있는 테마 동물원이다. 소나무 그늘과 악어, 생태학습장, 체험장, 생활용품 관람 등 우리의 생태계와 민속 등을 알 수 있는 교육 현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 3. 민속놀이

#### 용구재 이무기제 놀이

용구재 이무기제는 우리 고장 일산서구 송포동 뱀개마을 일대에서 전해져 오고 있는 민속놀이이다. 이 놀이는 백암마을 앞 내촌 용명이에 살던 큰 이무기가 용이 되려는 순간 마을 사람들의 실수로 부정을 타 용이 못된 것에서 시작된다. 이 이



무기가 매년 마을에 흉수와 질병을 퍼뜨리며 화풀이하자 이를 달래기 위해 이 놀이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무기제 놀이는 맨 처음 이무기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으로 출발하여 이무기에 제사 지내기, 이무기를 가지고 마을 돌기, 이무기 놀리기, 이무기 모시기, 뒷풀이의 순서로 진행된다. 즉 놀이는 이무기를 만든 후에 마을의 어른들이 나오셔서 제사를 지내고 이무기를 각 집집마다 놀리게 된다. 또한 온갖 액운을 다 가져가라는 의미로 재웅(짚으로 만든 인형)과 이름이 쓰여져 있는 명다리를 이무기에 꽂게 된다. 그 후 이무기를 한강의 나루터 언덕에서 배에 싣고 황해 바다로 나간 뒤 풍랑을 만나면 이 이무기를 버려 풍랑을 잠잠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놀이는 수십여 명이 참여하고 제사와 놀이·축제가 함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민속놀이이다. 2001년 전국민속예술축제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하여 종합최우수상(국무총리상)을 받았다.

#### 십이지신 불한당놀이 놀이

이 놀이는 일산지역의 장항동·주업동·대화동 일대의 한강 부근에서 전래되고 있는 민속놀이이다. 놀이의 배경이 되는 이 지역은 주변에 일산·송포평야와 같은 큰 벌판이 있고, 한강을 오고가는 배를 갖게 되면서 점차 그 재물이 많이 모였다. 이러한 소문을 들은 인근의 등령말 힘센 불한당 패거리들이 자주 출몰하여 배는 물론 마을에 들어와 행패를 부리고 재물을 빼앗아가곤 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마을에 쳐들어올테니 그때까지 재물을 준비하라는 협박을 하고 물러가게 된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마을을 지키기 위하여 전 주민들을 모아 불한당을 몰아내기 위한 기간을 정하게 된다. 그리고 12지신(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으로 하여금 이 불한당의 접근을 막게 한다.

각기 마을 사람들은 이 12지신의 발을 쓰고 갑, 창, 몽둥이 등을 들고 마을을 지키면 대갓집에서는 술과 고기를 내오게 된다. 이 놀이는 십이지신의 발과 깃발을 준비한 후 노적거리 주변에 마을 사람과 십이지신이 숨고 불한당이 나타나면 십이지신과 백전꾼, 장사, 씨름꾼 등이 이들 불한당들을 혼내준 뒤 멀리 몰아내는 순서로 진행된다. 싸움이 끝난 뒤 마을 사람들은 마을로 돌아와 큰 잔치를 베풀며 마을의 단합과 화합을 기리게 된다.

#### 진밭 두레매 놀이

일산동구 고봉동 진밭마을에서 전래되고 있는 민속놀이, 농악이다. 이 농악놀이는 수백년 전부터 농사일이 힘들 때면 동쪽에 올라 흥을 돌아주는 순수한 농악놀이로 그 모습이 큰 변화없이 그대로 전수되고 있는 우수한 두레매 농악이다.

이 놀이에는 1채가락부터 12채가락까지 등장하는데, 농기와 영기를 앞세우고 등장하면 흥이 절로 나는 우리 고장 사람들과 매우 친숙한 농악놀이라 하겠다. 놀이에는 군사놀이, 오방진으로 명석갑아들기와 쫓기, 벽구(범고)놀이, 사롱배이놀이, 농사놀이, 좌우치기놀이, 거상가락놀이, 3채가락 춤추기, 열두발 삼모놀이 등이 있다. 이 놀이는 지금도 농촌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는 진밭마을에서 마을 주민들 스스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다른 농악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재금'의 등장과 농악놀이가 다양한 점, 벽구의 숫자가 많다는 점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 맹개안 사줄다리기

이 놀이는 일산서구 송포동의 맹개마을과 송산동 배미마을 사이의 맹개안 개울에서 펼쳐지는 민속놀이이다. 놀이는 이름 그대로 맹개안 개울에서 뱀 모양의 긴 줄을 만들어 두 마을이 서로 줄다리기를 하며 즐기는 민속놀이로, 매년 음력 12월 그믐에 시작해 이듬해 정월 열셋새 날까지 한다. 놀이의 목적은 마을의 평안함과 풍년을 기원하는 것이다. 놀이는 처음 맹개개울이 놓일 다리를 만들기 위한 다리목 베기, 마을마당놀이, 뱀줄꼬기, 뱀줄을 맹개개울로 옮기기, 다리목 세우기, 여자줄·남자줄을 꼬아 만드는 합사와 줄다리기, 모든 액과 줄 불사르기 등으로 이어진다. 이 놀이는 경기도 북부지방에서 보기 드문 다리 만들기, 뱀줄 줄다리기로 두 마을의 화합과 다양한 진행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중요한 민속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민속놀이라 할 수 있다.

### 행주 농악놀이

이 민속놀이는 평양구 행주동 마을에서 전래되고 있는 놀이로 옛 농사놀이 행사에 참가한 놀이패이다. 이 마을은 임진왜란 3대첩의 하나인 행주대첩의 행주산성과 인접해 있는 곳으로 옛부터 단결심이 강하고 대첩에 대한 강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이러한 마을의 배경은 행주 농악놀이를 구성해 하였고 지금도 행주대첩제, 행주문화제 등이 산성에서 펼쳐지면 어김없이 등장하여 축제를 흥겹게 해주고 있다. 이 놀이는 일반적인 농악놀이에 이어서 마을 아녀자들이 주축이 되어 '행주치마 놀이'를 펼친다. 이 놀이패들은 각기 앞치마인 행주치마를 입고 앞에 있는 접이끈을 따라 움직이면서 흥겹게 춤을 추며 옛 행주대첩의 승전을 기리곤 한다.

이외에도 고양지역에는 고양 심아대 말장박는 소리, 고양 쌍그네 놀이, 경기 십이채 가락, 김감역 호상 상여회대소리와 같은 민속놀이가 전수·전래되고 있다.

## 4. 인물

### 은영

우리 고장 행주동에 묘가 있는 신라시대의 유명한 충신이다. 「삼국사기」라는 책에 전해 내려오는 기록에 의하면 나라에서 큰 벼슬을 하던 충신 은영(殷影)은 신라 효공왕이 어여쁜 여인에게 빠져 나라 일을 보지 않자 몇 번 고칠 것을 말씀드렸다고 한다. 그러나 왕이 계속 그 여인을 좋아하여 나라가 몹시 힘들고 어려워지자 은영은 죽음을 무릅쓰고 그 여인을 쳐죽여 옥에 갇혔다고 한다. 후에 신라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연 고려에서는 태보라는 벼슬을 내려주고 시호를 충숙공이라 했다고 한다.

### 최영

고양동에 묘가 있는 최영(崔瑩) 장군은 어린이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유명한 장군이면서 충신이다. 장군은 서기 1316년에 태어나서 1388년에 돌아가셨다. 본관은 동주(철원)이며 최원직의 아들로 태어났다. 젊은 시절부터 북쪽의 흉건적 및 왜구를 토벌하였으며, 1354년에는 중국 산둥지방의 장사성을 치기 위해 원병을 이끌고 승리를 거두어 그 이름을 중국에까지 널리 알리게 되었다. 또한 원나라의 압록강 서쪽 지역을 수복·점령하여 그 영토를 넓히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왜구와 흉건적은 물론 최유 등 고려 내부의 반란을 진압·평정하는 등 큰 공을 세우게 된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뒤 상을 내리면 모두 다시 나라에 되돌리는 충직한 장군으로 '황금보기를 둘 같이 한' 청렴한 인물이었다.

명나라와 철령위 문제가 생기자 최영 장군은 이성계 등으로 하여금 요동을 정벌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화도의 회군으로 실패한 뒤 고양(고봉)에 유배되었다가 처형되었다. 최영 장군은 총 80여 회 전쟁에 나아가 승리를 거두었으며, 그가 죽자 고려는 곧 멸망하게 되었다. 장군의 시호는 무민공이다.



최영 장군 묘소

## 이무

1355년에 태어나 1409년에 돌아간 이무(李茂) 선생은 고려말·조선조 초기의 인물이다. 본관은 단양이며 고려말과 조선시대에 높은 벼슬을 지냈다. 특히 조선이 개국된 후에 1393년 제1차 왕자의 난에 태종 이방원을 도와 나라의 정사공신 1등이 되고 단산부원군에 봉해졌다.

그리고 우의정·좌의정을 지냈으며 특히 1406년 김사형, 이희 등과 함께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라는 세계 최초의 세계지도를 그렸다. 이 지도는 현재 일본의 대학에 소장되어 있는데 지금의 세계지도와 큰 차이가 없는 훌륭한 지도이다. 이무는 1409년에 민무구의 옥사에 연루되어 유배되었다가 돌아갔으며 그 묘는 주교동에 위치해 있다. 시호는 익평공이다.

## 남효온

고양의 문봉서원에 모셔진 고양8현의 한 분이며 생육신 중 한사람이다. 호는 추강이며 시와 글을 잘 짓는 인물로 유명하다. 남효온(南孝溫) 선생은 1454년에 태어나 1492년에 돌아갔으며 김평필, 정여창, 김시습과 매우 친했다고 한다.

어려서부터 효자로 유명하며 주변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라 칭송이 자자했으나 관직에 나가지 않고 절의를 지킨 인물이다. 특히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의 능을 다시 복위하자는 상소를 올린 충신이며 또, 김종직의 제자로서 끝까지 의를 지킨 인물로 널리 알려졌다. 이 일로 그는 1504년에 부관참시를 당하게 된다.

남효온은 말년에 육신전을 지어 충절을 바친 여섯 신하의 충성심을 후대에 전하게 하였으며 자신도 죽은 뒤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문정이란 시호를 받게 된다. 또한 「추강집」 등 많은 책들도 남겼다. 행주산성 부근의 한강에 자주 들러 시를 지었으며, 묘는 대성동에 있다가 지금은 김포시로 옮겼다. 행주나루 야외공원에 선생을 기리는 시비가 세워져 있다.

## 송강 정철

송강 정철(鄭澈)은 조선시대 중기의 시인, 문장가, 정치인으로 유명한 글을 많이 남긴 훌륭한 문장가였다. 우리 고양시 원신동에는 송강의 시를 적어 놓은 비석을 비롯해 문학관, 그리고 송강의 아버지, 어머니의 묘가 남아 있다. 이곳에는 또 송강을 따라다니며 도와준 강아라는 여인의 무덤도 조그마하게 남아 있다.

송강이 신원(새원)에서 지은 시조가 전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율 장군 서비

“새원에 주인이 되어 싸릿문을 고쳐 달고  
호르는 물과 푸르고 맑은 산을 벗삼아 노니노라.  
아이야 벽제에서 손님이 와서 나를 찾거든  
나 나가고 없다 하거라.”

### 권율

권율(權慄)은 조선시대의 유명한 장군이자 충신으로 그와 관련된 중요한 유적지는 행주동의 행주산성 일대이다. 우리 고장의 어린이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권율 장군은 서울에서 태어나 젊은 시절부터 우리나라의 여러 산들을 둘러보며 그 지세를 익혔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과 군사들을 이끌고 이치성·독산성 등에서 적을 물리쳤고, 행주산성에서도 적은 병력으로 왜군을 크게 물리쳐 대첩(큰 승리)을 거두었다. 이 대첩은 임진왜란 3대첩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장군은 임진왜란의 오랜 기간 동안 도원수라는 높은 벼슬을 지냈으며, 임진왜란 행주대첩의 공적 등으로 선무 1등 공신이 되었다. 묘는 양주시 장흥에 있다.

### 고양8현

고양8현(高陽八賢)은 우리 고장 고봉동에 있었던 문봉서원에 모셔져 있는 여덟분의 훌륭한 분들이다. 이 분들은 추강 남효온, 사재 김청국, 복재 기준, 추만 정지운, 행촌 민순, 모당 홍이상, 석탄 이신의, 만회 이유겸 등으로 모두 우리 고장이 고향이거나 우리 고장을 빛낸 분들로 조선시대의 인물들이다. 이들은 절의를 지킨 충신을 비롯하여 학문을 연구한 도학자, 향촌을 지킨 의병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장흥

장흥(張興) 장군은 우리 고장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이다. 본래 덕양구 흥도동 배라산 마을이 이 분의 고향으로, 어렸을 때의 이름은 장기진이며 어렸을 때부터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남달랐다고 한다. 3·1 운동 이후 중국 상해로 망명하여

임시정부 등에서 일하였고 이후 주로 헌병대를 이끌며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고 질서를 유지하는 임무 등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특히 일본이 망한 후 장군은 한국으로 들어와 우리나라 초대 헌병 사령관 역할을 하여 해방 후의 질서유지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장흥 장군은 나라를 빼앗겼을 때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친 훌륭한 분이다.

이밖에도 우리 시에는 오랜 역사의 고장답게 많은 인물들이 큰 흔적을 남겼다.

## 5. 전통민속과 축제

### 정발산 말머리 도당굿

정발산 말머리 도당굿은 옛 일산읍의 6개 자연 촌락인 마두동·장항동의 낙민, 강촌, 설촌, 냉촌, 놀메기, 닥밭 마을 사람들이 마을의 전산인 정발산에서 행하던 도당굿이다. 굿은 2년마다 한 번씩 음력 3월 초순경에 좋은 날을 선정하여 실시하였는데 마을 전체의 안녕을 축원하기 위해서다.

정발산은 이 일대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명산(靈山)으로 여겨지고 있다. 옛날 정발산에 흰 수염이 많이 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노인이 마을에 질병을 가지고 들어오는 동자를 쫓아내 마을이 무사하게 된 이후부터 굿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도당굿은 단골 무당인 만신(여자무당)이 맡는데 무당 5~8명, 악사 3~5명이 참여한다. 악기는 피리, 대금, 호적, 장고 등이 사용된다. 정발산 도당굿은 강신무 중심의 굿이며 전체적인 흐름은 서울지역 마을굿을 답었다고 한다. 이 굿은 마을 수호신인 도당 할아버지와 도당 할머니를 모셔오는 대내림의 절차와 규모가, 다른 굿에서는 보기 힘든 장중하고 화려한 특징을 갖고 있다. 고양시 향토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이외에도 진발두레농악, 백석동 흰돌도당제, 풍동 산치성, 밥할머니 재례 등이 고양시 향토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 고양시 소리꾼 동관 김현규

동관 김현규 선생은 조상 대대로 고양시 대화동에서 김성촌을 이루어 살아온 토박이다. 동관 선생은 30여 년 동안 고양의 소리·몸짓을 완벽하게 익힌 기능 보유자였다. 실제로 현재 대화동에는 김녕김씨 집안 사람들이 옛 전통놀이·문화를 보존하며 살아가고 있다.

동관 선생에게 여러 가지 소리와 민속놀이를 전수해 준 사람은 큰아버님 되는 양촌마을 김형은 옹으로, 작고하기 전까지 대화동 두레패의 영자 노릇을 오래 지낸 인물이다. 동관 선생은 맹개안 사춤다리기를 비롯한 민속놀이와 민요의 선소리, 지경 다지는 소리 등 구전되는 민요, 북, 장고 등의 짚이 놀림 방법 등을 배웠는데, 이것은 특히 대화동 지역에만 전래되던 것으로 이 중 고양 12채 가락은 그 중요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동관 선생은 고양 소리가 다른 지방에 비해 신나고 경쾌하며 소리가 길어 아름다운 것이 특징이라 했다.

### 행주문화제

행주대첩의 얼을 후대에 길이 전승하고 고양시민 모두의 화합을 위해 매년 열리는 큰 문화행사이다. 이 문화제 행사는 주로 행주산성, 화중로 거리, 고양어울림누리 등에서 치루어진다. 먼저 행주산성에서는 권율 도원수를 기리는 행주대첩 총장사 제전행사, 행주서원 제례, 궁도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유지지 역사기행 등이 이루어진다. 화정 화중로에서는 총 인원 600여 명이 참가하는 권율 도원수 승전거리 축제가 진행된다. 이 행사에는 전통복장을 입고 말을 타고 창·칼을 든 장군·무사·군졸들이 총 1km의 행렬을 유지하면서 약 3km의 거리행진을 한다. 이 행렬이 고양어울림누리에 도착하면 문화 공연 등이 주축을 이루는 승전음악회가 대규모로 치루어진다. 또한 이외에도 서예전, 다도예절 실습, 연날리기, 문화체험 등도 열린다.



제 5 장  
마을 이야기





## 1. 덕양구 (德陽區)

덕양이라는 이름은 고려시대로부터 불리는 것으로 행주라는 명칭과 함께 쓰여진 오래된 이름이다. 현재 덕양이란 이름은 행주산상의 청상인 덕양산, 덕양구청, 덕양중학교, 덕양대로 등 여러 이름으로 쓰이고 있다. 덕양구의 구청은 화정1동에 위치하며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있는 행정구역이다. 덕양구는 그린벨트 등으로 농촌, 산림 등이 밀산지역에 비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다.

### 주교동 (舟橋洞)

주교동은 고양시청이 있으며 고양시의 행정과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마을이다. 이곳은 예전부터 한강과 가까운 곳에 있어 물이 많을 때면 이 마을의 하천까지 배가 들어와 그 배로 다리를 만들었다고 하여 배주(舟) 차와 다리교(橋) 차를 써서 주교동으로 불렀다. 농촌과 도시 마을이 함께 있으며, 이곳 마을 사람들은 주교동을 한글로 풀어서 '배다리' 라는 이름으로 널리 부르고 있다. 마을에는 배다리, 님말, 이작골, 독꽃이, 박재궁 등의 자연촌락이 있으며, 서울교의선 철도의 원릉역도 있다. 앞으로 뉴타운 사업으로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마을이다.

### 성사동 (聖沙洞)

성사동은 주교동의 동쪽에 있는 마을로 행정동으로는 1·2동으로 나뉘어져 있다. 상가, 아파트, 농촌 등이 함께 있는 마을로 전철과 도로 등이 지나고 있는 교통이 편리한 곳이다. 이곳을 성사동이라 부르는 것은 아주 오래된 마을인 성라산촌(일명 베라산)과 사근절마을에서 한 자씩 따붙인 이름이다. 지금도 이 마을에는 농촌의 모습으로 남아 있는 곳과 도시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 마을의 중심산인 성라산은 국사봉, 국수봉으로 부르고 있으며 뿔하늬, 베라산, 땀물말, 수역이, 뿔베다리, 사근절이, 용우출이, 살꽃이, 불당골, 신원당 어울림마을이 있다. 성사동의 일부 마을도 뉴타운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그 모습이 크게 바뀔 예정이다.

### 원당동 (元堂洞)

원당동은 고양시청이 있는 주교동의 북쪽과 북동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이곳에는 고려 공양왕릉과 서삼릉 등의 사적지가 있으며 원당골(원데이), 섬말, 루동, 왕릉골, 세정말, 새말, 청태골, 진땃말, 능말 등이 있다. 마을은 대부분 아파트나 상가가 전혀 없는 농촌마을이다. 이곳을 원당동이라 부르는 것은 이곳에 왕릉이

있어 이 능에 제사를 지내는 큰 정자각, 즉 큰 집이 있다는 뜻에서 원당이 되었다고 한다. 서울교외선 철도의 삼릉역이 있으며 마을 가운데로 철도가 지나간다.



#### 신원동 (新院洞)

신원동은 원당동의 동쪽에 위치한 마을로 해방촌, 불구리, 능골, 송강마을, 안터, 장뜰, 조관동, 새원, 한우물 등의 작은 마을이 있다. 마을 앞으로는 공릉천이 흐르고 1번 국도인 통일로가 마을 가운데를 지나 교룡이 편리하다. 이곳 신원동은 조선시대부터 북쪽으로 이어진 관서대로, 경의로, 연행로라는 큰 길이 지나던 곳이었다. 신원동은 흔히 새원이라고 부르는데 새로 생긴 역이라는 뜻이다. 즉 예전에 조그마한 역 또는 원(院)이 있었는데 나중에 새로 만들었다고 하여 새원이란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다고 한다. 크게 도시화된 곳은 없으며 대부분 근교농업을 하는 농촌마을이다. 최근 한우물, 장뜰, 조관동, 해방촌 마을은 삼송 신도시 개발로 본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서게 된다.

#### 원흥동 (元興洞)

원흥동은 보통 나무드머리라고 불리는 마을로 고양시청의 동쪽에 위치한다. 이곳에는 솔개, 가시골, 육골, 궁말, 나무드머리, 구척말, 절골, 달갈부리의 자연촌락이 있다. 대형상가는 없으며 주로 논농사, 밭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원흥동의 본래 이름은 목희리었는데 나무가 드물다는 뜻이다. 청자를 굽던 도요지가 있어 매일 청자를 굽기 위해 나무를 베어내 땀감으로 써서 나무가 없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목희리라는 이름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인들에 의해 원흥리

로 바뀌게 된다. 원당지역을 크게 발전시킨다는 뜻이라고 한다. 솔개, 가시골 마을은 삼송택지 개발지구 내에 포함되어 대규모의 도시가 건설되고 있다.

#### 도내동 (道乃洞)

도내동은 원흥동의 남쪽에 있는 마을로 석탄촌, 서촌, 동촌, 셋말, 은못이, 방아골, 외고개, 서재동, 방석외 등의 자연마을이 있다. 관내 흥도초등학교가 있으며 이석탄장대비, 이축 선생의 묘와 온지연못 등의 문화재가 있다. 이곳 도내동은 대부분 농촌마을로 남아 있으며 임진왜란 당시에 석탄 이신의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이곳에서 적을 물리친 것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군사를 이끌고 적에게 겁을 주기 위해 창룡천 옆의 도란산을 들고 돌아 이곳 마을 이름을 도내동이라 부른다고 한다. 도내동의 일부 마을도 원흥보급자리 주택지로 포함되어 그 모습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내동 이석탄장대비

#### 북한동 (北漢洞)



북한동은 고양시의 가장 동쪽 끝인 북한산 산속에 있는 마을이다. 우리 시에서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며 또한 인구도 가장 적은 곳 중 한 곳이다. 북한동 사람들은 대부분 북한산성 안쪽에 살면서 농사, 식당 등을 생업으로 삼고 있다. 북한산성을 비롯한 많은 문화재가 있으며 경치가 아름다운 마을이다. 이곳을 북한동이라 부르는 것은 한강의 북쪽에 있는 북한산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주말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을을 찾는다. 북한산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마을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 효자동 (孝子洞)

효자동은 북한동의 서쪽과 북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마을에 큰 상가, 아파트 등

이 없는 농촌마을로 정원에 심는 나무공원과 식당 등을 볼 수 있다. 마을의 동쪽에는 북한산이 있고 서쪽으로는 창릉천이 있는 살기 좋은 곳이다. 이곳에는 사기막골, 계청말, 신둔, 효자원 등의 마을이 있다. 이곳을 효자동이라 부르는 것은 계청말 마을에 조선조 후기에 유명한 박태성 효자의 무덤과 정려비, 그리고 호랑이 무덤이 있어 생긴 이름이다. 창릉과 구파발을 연결하는 큰 도로가 있어 교통이 편리하며 북한산으로 오르는 길목에 있어 등산객이 참비는 곳이다.

#### 지축동 (紙柱洞)

지축동은 효자동의 서쪽과 남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이곳에는 짜리말, 철골, 배미골, 종고개, 안진동, 곰밭, 공무원주택, 큰밭, 지청동, 오부자골 등의 작은 마을이 있다. 지하철 지축역 주변에는 지축초등학교를 비롯해 소규모의 상가와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나 나머지 지역은 일반 농촌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마을 앞으로는 창릉천이 흐르고 있으며 지하철 3호선이 있어 교통도 편리한 곳이다. 흥국사와 같은 오래된 사찰도 있다. 옛날 이곳이 종이를 만들던 지청동과 짜리마을인 축리마을이 있어 이 두 마을에서 한 글자씩 따 지축리가 되었다. 일부 지역은 지축 신도시 개발로 그 모습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 오금동 (梧琴洞)

오금동은 지축동의 서쪽과 북쪽에 위치한 마을로 비닐하우스, 논, 밭, 소규모의 상가가 있는 마을이다. 산막골, 삼촌, 중촌, 하촌, 큰골, 당곶말, 새말, 모당(장)말, 독정말 등 작은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박세영 묘, 박대립 신도비, 감지묘 등의 문화재가 있다. 오금동은 예전 이곳 마을에 오동나무가 많아 이 나무로 거문고를 만들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마을 앞으로는 불일로가 지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2009년 삼송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대부분의 마을 주택은 사라졌고, 한창 신도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주변에 백토산 등이 보전되어 숲속의 도시 모습으로 탈바꿈 할 것으로 보인다.

#### 용두동 (龍頭洞)

용두동은 동산동의 남쪽에 있는 마을이며 서오릉으로 유명한 곳이다. 이곳은 서울시의 은평구 구산동 갈현동과 경계하고 있으며 비선말, 별



말, 아랫말, 능말, 윗말, 가운데말, 운하리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대부분 농촌마을이며 서오릉 입구에 소규모의 상가, 식당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 용두동은 일명 용머리라고도 부른다. 즉, 이곳 서오릉의 위치는 천하의 명당 자리로 용의 머리에 해당한다고 하여 용두동이라 부르고 있다.

### 삼송동 (三松洞)

삼송동은 오금동의 남쪽과 남서쪽에 위치한 마을로 삼송주택, 삼송리, 숲돌고개, 신성주택, 세수리, 달갈부리 등의 작은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마을 앞으로 창릉천이 흐르며 통일로, 지하철 3호선 삼송역이 있어 교통이 편리한 요지이며 주민센터, 고양중학교, 고양고등학교, 삼송초등학교 등 학교와 여러 기관이 이곳에 있다. 큰 아파트 단지는 없으나 삼송역 주변에 소규모의 상가와 인구가 몰려 있는 단독주택 단지가 있다. 이곳 삼송역은 예전 서삼릉의 입구라는 뜻에서 소나무 새그루를 심었는데 이 뜻을 한문으로 옮겨 삼송리가 되었다고 한다. 일부 지역은 삼송 신도시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 동산동 (東山洞)

동산동은 삼송동의 동쪽에 있는 마을로 중앙에 고양대로가 지나는 곳이다. 서울의 구파발과 가까워 생활이 편리하며 대규모의 비닐하우스 등 근교농업이 발달한 곳이다. 도로 주변으로 단독주택이 즐지어 있으며 하촌, 바깥말, 새말, 신성동, 큰말, 뽕골 등의 작은 마을이 있다. 동산동은 예전 고양군청이 벽제 지역에 있을 때 그 마을의 위치가 동쪽 끝 산 아래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마을 앞으로는 창릉천이 흐르고 있다. 일부 지역은 삼송 신도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현재의 모습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 벽제동 (碧蹄洞)

벽제동은 고양시의 가장 북쪽에 있는 마을로 파주시의 광탄지역과 양주군의 장흥지역이 경계를 이루고 있는 마을이다. 이곳은 상촌, 목암마을, 양짓말, 음짓말의 마을이 있고 개명산, 우암산 등이 있는 곳이다. 본래는 농촌마을이었으며 1990년대 초반부터 소규모의 빌라형 아파트 등이 들어서고 최근에는 대규모의 아파트와 대형음식점 등이 들어서기도 했다. 원당~의정부 간의 덕양대로 부근에 대규모의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지형이 크게 변하기도 했다. 이곳 벽제는 예전부터 높은 관리와 임금이 자주 오던 곳으로 풀을 밟던 말 밟굽이 파랗게 물들고, 서울 주변에 경치가 아름답고 나무가 울창하다는 뜻으로 벽제라고 불렀다고 한다.

### 선유동 (仙遊洞)

선유동은 벽제동의 남쪽에 있는 마을로 대부분 논밭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다. 이곳에는 월촌, 성촌, 삼산, 불미지 등의 마을이 있으며 마을 앞으로는 교외선 기차와 공릉천이 지나고 있다. 이곳 선유동은 예전부터 경치가 아름다워 신선이 놀고 가는 마을이란 뜻에서 선유동이라 불렀다고 한다. 마을 입구의 숲길과 곳곳에 역사 유적이 있고 선유담이란 테마마을을 조성해 널리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

### 고양동 (高陽洞)

고양동은 선유동과 벽제동 사이의 마을로 주민센터, 학교, 파출소 등이 있으며 벽제의 중심지역이다. 이곳은 고양시와 파주, 양주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대규모의 고층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인구가 밀집된 곳도 있고, 농촌지역도 함께 있는 곳이다. 향교마을, 정막, 읍내, 음지말 등 자연마을이 있고 고양향교, 중남미 문화원, 벽제관지, 은행나무 등 유적지와 명승지도 있다.

고양동은 조선조 중기 때부터 1914년까지 고양군청이 있던 고양시 역사의 중심지로 지금도 곳곳에 당시의 역사적 흔적들이 남아 있다. 이곳을 고양동이라 부르는 것도 옛 군청 등 고양지역 역사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대자동 (大坡洞)

대자동은 고양동의 서북쪽에 위치한 마을로 쌍궁말, 고읍, 간촌, 대자골, 빈정동, 용복원, 한오동, 새원, 뽕지골 등의 작은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이곳은 최영, 성령대군, 연산군 금표비 등이 있어 고양시 내에서 가장 많은 문화유적이 있기도 하다. 대부분 농

촌마을이며 덕양대로, 통일로가 지나 교통이 편리하며 마을 앞으로 공룡천이 흐르기도 한다. 대자동이란 이름은 조선조 태종 때부터 불린 이름이다. 조선조 제3대 왕인 태종의 4번째 대군이며 세종대왕의 아우인 성령대군이 어린 나이에 갑자기 죽자 큰 자비를 비는 뜻에서 대자사 절을 지었고 이 절이 있는 곳이라 하여 대자동으로 부르게 되었다.

### 관산동 (管山洞)

관산동은 대자동의 서쪽과 북쪽에 있는 마을로 도시화된 지역과 농촌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시묘동, 남말, 안말, 시장말, 주막거리, 두포동, 가장동, 고골의 작은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마을 앞으로 통일로가 지나고 있으며 공룡천 주변은 경치가 좋은 곳으로 유명했던 곳이다. 관산동은 예전 이 마을이었던 고읍, 쌍굴말 마을에 고양군청 측 객사가 있던 곳이라 하여 객사가 있는 산마을이란 뜻에서 관산동이 되었다고 한다. 이곳에는 한계미 표, 김명원 묘 등의 문화재가 있으며 옛 벽제읍의 읍사무소가 있는 등 고양동과 함께 벽제지역의 중심 마을이다. 2000년대 초반 시묘동 일대에 대규모의 아파트가 건설되었다.

### 내유동 (奈遊洞)

내유동은 관산동의 북쪽에 있는 마을로 관산동과 파주시 조리면 지역의 사이에 위치한 마을이다. 이곳은 특별히 도시화된 지역은 없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 공예단지가 들어서고 있으며 통일로 변에는 상가, 집들이 많이 들어섰다. 이곳에는 내산동, 유산동, 응달촌, 신성동 등의 작은 마을이 있으며 특별히 문화재가 많은 곳은 아니다. 내유동은 예부터 농작이 많은 내산마을과 살기 좋은 유산마을에서 한 글자씩 따 붙인 이름이다.

### 토당동 (土堂洞)

토당동은 옛 지도읍 지역에 포함되는 마을로 경의선 농곡역에서 가까운 마을이다. 이곳은 현재 대부분 도시화가 추진되었으나 삼성당 마을은 옛 농촌의 모습이 비교적 잘 남아 있다. 토당동은 이 지역의 중심마을로 주민센터, 파출소, 농협, 호텔, 시장 등이 있어 교통과 상업이 매우 발달한 곳이다. 경의선과 토당로, 삼성당로와 같은 큰 길이 있어 많은 사람이 지나는 곳이다. 농곡초·중·고가 함께 있어 교육의 마을로도 유명한 곳이다. 토당이란 이름은 조선시대부터 부른 명칭이라 하는데 지조 높고 웅직한 선비들이 이곳에 흠으로 집을 짓고 머물러 살았다고 하여 생긴 이름이라 한다. 토당동에는 농갈, 얼음돌, 사외, 삼성당의 작은 마을이 있다. 뉴타운 개발사업으로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마을이다.

### 내곡동 (內谷洞)

내곡동은 토당동의 서쪽과 북쪽에 있는 마을로 경의선 기차 곡산역 부근의 마을이다. 대부분 농촌 마을인데 뒤꾸지, 안골마을로 나뉘어져 있다. 마을 뒤로는 영주산이 있고 앞으로는 큰 평야가 펼쳐져 있다. 이곳 사람들은 농곡 등에서 들어오는 마을버스나 기차를 이용하며 집들은 대부분 한옥, 개량형 단독주택의 모습을 하고 있다. 내곡동은 농곡지역 등에서 볼 때 마을이 영주산 기슭의 안쪽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흔히 안골이라 부르기도 한다. 마을 뒤편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다.

### 대장동 (大壯洞)

대장동은 토당동과 내곡동 사이에 있는 마을로 서울 교외선의 대곡역과 대정역 사이의 마을이다. 다른 이름으로 이 마을은 '대재이'라 하며 도시화된 곳 없는 농촌마을이다. 상대장, 중대장, 갈머리(하대장)로 마을이 나뉘어져 있으며 논농사, 밭농사 위주로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을 앞으로는 한강변과 화정동 방향에 큰 벌판이 있으며 뒤편에는 묘하나골산이 있다. 이곳을 대장동이라 부르는 것은 이 마을의 산세와 모양이 큰 장사가 나올 좋은 자리로 큰 대(大)와 장사 장(壯) 자의 지세를 가지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화정동 (花井洞)

화정동은 1·2동의 행정동으로 나뉘어져 있는 덕양구의 중심 마을로 덕양구청, 지하철 화정역, 고양경찰서 등이 있는 곳이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곳에는 골머리(꽃물리), 잔우물, 백양동의 마을이 있었으나 지금은 대부분 아파트 마을로 개발되었다. 이곳에는 예부터 배나무가 많아 농곡·화정배로 유명했다. 지금은 옥빛·은빛·별빛·달빛·꽃동네 마을이 있다. 화정동은 우리말로 꽃우물이란 뜻으로 예전의 화수촌마을에서 '화' 자를, 냉정마을에서 '정' 자를



따 생긴 이름이다. 화정이란 이름에서 꽃과 우물로 유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행신동 (幸信洞)

행신동은 화정동의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현재는 모두 1·2·3동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농촌마을 일부와 도시화된 마을로 구분되어 있다. 15년 전까지도 이곳은 농촌이었다. 이때 행신동은 무원이, 소만이, 차장말, 장고외, 가라외, 오거리, 성신마을, 송장고개, 서두물 등 조그마한 마을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후 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서두물, 가라외를 제외한 지역은 모두 아파트와 현대식 건물로 바뀌었다. 지금은 무원·소만·햇빛·샘터·서정마을 등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행신이란 이름은 이곳에 머물러 살면서 각 주민들이 서로 행복하게 믿고 살라고 하여 행신이라 했다고 한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행주지역 부근에 새롭게 생긴 마을이라 하여 행신이라 한다는 사람도 있다. 2000년대 후반에는 서두물마을도 개발이 이루어져 새로운 아파트 마을로 변화되었다.

#### 강매동 (江梅洞)

강매동은 행신동의 남쪽에 있는 평범한 농촌마을이다. 이 마을의 앞으로는 고속철도(KTX)의 차량기지로 건설되었으며 뒤편에는 봉대산과 창릉전이 있다. 크게 매화정, 은행정, 강고(구)산 마을이 있다. 대부분이 논·밭농사를 지으며 아파트는 전혀 없고 단독주택만이 있는 곳이다. 강고(구)산 마을에는 오래된 강매들다리가 있다. 강매라는 이름은 이곳에 있는 마을 강고(구)산 마을의 '강'자와 매화정 마을의 '매'자를 따 붙인 이름이다.

#### 영주내동 (幸州內洞) · 영주외동 (幸州外洞)

행주내동은 강매동의 서쪽에 있는 마을로 행주산성으로 유명한 곳이다. 대부분 농촌마을로 농업에 종사하였으나 요즘에는 잣골마을을 중심으로 많은 식당이 들어서고 있다. 이곳에는 성동(잣골)마을과 결석(맨들)마을이 있으며 마을 앞으로 자유로와 연결되는 행주산성로와 농어촌



아름다운 영주내·외동

공사의 수로가 지나고 있다. 이곳 행주내동은 행주산성을 기준으로 그 안쪽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한편 행주외동은 한강과 인접해 있는 마을인데 예전 행주나루터가 있던 곳으로 우리 고장의 대표격인 어촌마을이다. 본래는 평범한 어촌이었으나 지금은 대부분 식당가들이 들어서 있으며 잠어구이 등이 유명한 곳이다. 이곳에는 달동네, 갯뱃밭, 서화촌, 서원촌, 행화촌 등의 마을이 있다. 행주서원과 행주성당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행주외동은 행주산성의 밖, 즉 한강 쪽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이 지역의 특산물인 용어는 고양시의 대표적인 토산물로 유명하다.

### 신평동 (新坪洞)

신평동은 토당동의 서쪽에 있는 마을로 한강 제방 아래에 자리하고 있다. 마을에는 산이나 구릉 등 높은 곳은 전혀 없으며 모두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진 마을이다. 본래는 오래된 집들도 있었으나 1990년 한강제방이 무너지면서 대부분 새로운 모습의 주택으로 변했다. 이곳은 한강 건너편의 김포군에 속해 있었던 곳이었으나 1920년대에 새롭게 고양군으로 편입된 곳이다. 신평이란 이름은 고양지역에 새로운 별판이 만들어졌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현재 마을 중앙으로 제2자유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 화전동 (花田洞)

화전동은 고양시의 가장 남쪽 끝인 옛 화전읍에 해당하는 마을이다. 이곳에는 화전역과 함께 한국항공대학교가 있으며 동 주민센터가 있다. 이곳은 서울과 매우 가까운 지리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1970~80년 대에 지어진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을은 크게 안골마을(안동네), 대흥관사, 벌밭, 밤나무골로 이루어져 있다. 화전동은 예부터 산·들·마을에 꽃이 많아 꽃밭을 한자로 옮긴 것이 화전동이라 했다고 한다. 또 어떤 분들은 이곳을 꽃밭, 즉 땅이 튀어나온 꽃의 밭이란 뜻에서 꽃밭이라 부르다가 꽃밭이 되었고 한자 이름인 화전으로 바뀌게 된 것이라 한다.

### 현천동 (玄川洞)

현천동은 화전동의 서남쪽에 있는 마을이며 다른 이름으로 거부내(가부내)라고 불리고 있다. 마을의 앞과 뒤로는 대덕산이 높이 솟아 있으며 대부분 평범한 농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는 음짓밭, 아랫밭, 난걸, 가무내, 먹골, 봉뿔골 등의 작은 마을이 있다. 이곳 현천동은 조선조의 하자이며 선미인 행촌 민순

선생과 많은 관련이 있다. 즉 민순 선생이 이곳에서 공부를 할 때 먹물로 낙엽에 글씨 연습을 하였는데 어쩌나 공부를 많이 하였는지 여름에 장맛비가 내리면 그 먹물이 흘러 마을 앞 하천이 온통 검게 되었다 하여 현천리가 되었다고 한다. 행촌 민순 선생은 고양8현의 한 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학자이다.

### 덕은동 (德潤洞)

덕은동은 화전동의 남쪽에 있는 마을로 한강과 인접해 있고 서울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곳에는 한국국방대학원과 군인아파트, 대덕동 주민센터가 있다. 마을 내에는 유가골, 대터, 원골, 셋밭, 호곡, 산동네 등의 작은 마을이 있으며 대부분 1970~80년에 지어진 단독주택이 많은 곳이다. 덕은동은 예전 이곳에 큰 선비, 학자가 살고 계셨는데 이 덕이 많은 분이 대덕산 부근에 숨어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이곳에서 가까운 상암동에 월드컵 축구경기장이 있다. 덕은동에서는 인근의 자유로를 바로 이용할 수 있어 비교적 교통도 편리한 곳이다.

### 향동동 (香洞洞)

향동동은 화전동의 동쪽에 위치한 마을로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울시와 이웃하고 있다. 이곳은 농촌마을이지만 1970년대부터 인구가 늘어나 지금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마을도 있다. 집들은 대부분 단독주택이며 원수골, 간찰, 애기농, 퇴골, 숲골 등의 마을이 있다. 이곳을 향동이라 부르는 것은 성치가 좋고 산이 많아 봄이 되면 온통 마을에 꽃향기가 가득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향동 택지개발사업으로 옛 모습의 마을은 대부분 사라지고 있으며,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 2. 일산동구 (一山東區)

일산동구는 덕양구, 일산서구와 함께 고양시를 이루고 있는 행정구로서 많은 시민들이 살고 있다. 일산동구에는 마두동·중산동 등과 같이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있는 인구밀도가 높은 마을과 함께 신항동·사리현동과 같이 인구가 적은 농촌마을이 함께 있다. 현재 일산 신시가지가 건설된 곳은 주로 농촌지역이었으며 신시가지 지역 이외에도 농촌마을인 고봉동과 같은 마을도 일산동구에 속해 있다. 이곳 일산동구는 시 승격 이전의 일산읍·벽제읍·원당읍 일부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덕양구에 비해 면적은 작지만 인구밀도는 높은 곳이다.



### 장항동 (獐項洞)

장항동은 행주대교에서 문산 방향으로 이어진 자유로변과 정발산 부근의 일산 신시가지 일부가 포함된 마을의 법정동 명칭이다. 이 중 개발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은 장항1동 지역은 논·밭 중심의 농사와 창고임대 등을 주된 산업으로 하고 있다.

주택들은 1990년 한강 제방 붕괴 이후 현대식 양옥으로 대부분 개축되었으며 일산과 농곡지역으로 생활권이 구분되어 있다. 고양시 내에서 지리적으로 가장 낮은 지역에 해당한다. 신시가지 내의 장항2동 지역은 호수·양지마을 등이 있고 유명한 호수공원도 장항동에 포함된다. 이곳에는 큰 규모의 오피스텔, 학교, 상가, 경찰서, 백화점 등이 있으며 아름다운 단독주택들도 자리하고 있다.



도시화된 장항동 지역

장항동은 마을의 생김새가 마치 노루의 목처럼 길다고 하여 노루장(獐)자와 목항(項)자를 써서 장항리라 했다는 설과, 정발산에 예부터 노루가 많이 살아 그 길목으로서 자주 마을에 나타났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라는 설이 있다.

### 마두동 (馬頭洞)

마두동은 정발산의 동·남·남서쪽에 위치한 마을의 법정동 이름으로 현재

마두1·2동으로 구분되어 있다. 신시가지 개발 전에는 논농사 중심의 농업에 주로 종사하였으나 현재는 대단위 아파트와 단독주택, 빌라 등이 건설되어 있다. 마을의 동쪽으로 경의선이 길게 이어져 있고 백마마을 부근에 백마역이 위치해 있다. 신시가지 개발 전에는 낙민·강촌·철촌·냉천·모범마을 등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현재는 강촌·백마·정발마을이 있다. 이곳에는 일산동구청, 마두역, 정발산역, 국립안센터, 고양아람누리, 마두도서관 등이 있으며 몇 곳의 초·중·고등학교가 있다.

마두동은 정발산에서 볼 때 마을 전체의 형상이 마치 말의 머리와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하며 일명 말머리라 불리고 있다. 이와는 달리 정발산은 말이 누운 형상인데 마두동은 그 머리에 해당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 백석동 (白石洞)

백석동은 마두동의 남쪽에 위치한 마을의 법정동 명칭으로 신시가지 개발 이전에는 방기, 샘पुर, 말미, 백석, 동굴매, 도촌, 백신 등의 자연촌락 명칭으로 불렸다. 현재는 백송·흰돌마을이 있다. 신시가지 개발 전의 모습은 농곡역에서 일산역으로 이어진 398번 지방도로를 사이에 두고 언덕 기슭에 집들이 위치하고 그 앞 한강 방향으로 밭과 논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마을 동쪽으로 경의선 철도가 지나고 예전 용쇄이별판이라고 불리던 철판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백석동에는 대규모의 아파트형 공장과 열병합발전처, 일산병원과 같은 큰 건물을 비롯해 백석역이 있고 여러 교육기관도 자리하고 있다. 백석이란 이름은 옛 백석4리 흰돌마을 도당산에 가로 약 2m, 세로 약 1m 크기의 백석이 놓여져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마을 주민들은 이곳에서 흰돌재를 유통하고 있다.

### 풍동 (楓洞)

풍동은 백석동·마두동의 동북쪽에 위치한 마을의 법정동 명칭으로 식사동의 서쪽에 해당한다. 이곳에는 식골, 민마루, 풍삼리, 애니골 등의 자연마을이 있으며 현재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아파트 지역으로 바뀌었다. 마을 이름인 풍동은 예부터 이 마을에 바람이 심하게 불어 피해가 잦아 주민들이 바람을 막기 위해 단풍나무를 많이 심었다는 데서 유래한다. 이 나무가 가을이 되어 단풍물이 곱게 들면 매우 아름다웠다고 한다. 이곳 풍동 식골마을 일대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 중산동 (中山洞)

중산동은 입산동구에 속한 범정동의 이름으로 고봉산 아래에 자리해 있다. 이 지역은 예부터 고구려 세력의 주요 진출로였으며, 그 중심에 있는 고봉산 아래에 있어 중산이라 하였다. 1980년대 초반 이 지역에는 중면이 있었는데 이는 고봉산이 그만큼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아파트가 지어져 옛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으며 경의선, 고양대로, 고봉로가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 사리현동 (沙里峴洞)

사리현동은 덕양구 관산동의 서쪽 지역으로 벽제초등학교가 위치한 인근 마을 범정동 이름이다. 마을 중앙에 성현로가 지나고 동쪽 끝으로 공릉천이 흐르고 있다. 사리현동에는 신촌, 땃골, 월현, 학교말, 인정골, 안골, 사당골, 읍지골, 새터, 혁명촌 등의 자연촌락이 있다. 사리재고개 옆에는 현대그린아파트, 한국문화예술연수원 등이 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농촌지역이며 1980년대 후반부터 논 대신에 비닐하우스가 들어섰다.

이곳은 본래 사리대면이었으나 1914년 벽제읍으로 통합되었으며, 사리현동이 된 것은 마을 앞으로 흐르는 공릉천이 모래를 이곳으로 운반하여 큰 고개를 만들어 놓았고 고개가 있는 마을을 사리재(사리현)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또 다른 유래로는 사리현동에서 문봉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에 모래와 배나무가 많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 지영동 (芝英洞)

지영동은 사리현동의 북쪽, 파주시 방향에 위치한 마을의 범정동 명칭이다. 대부분 농촌지역으로 논과 밭에 대규모의 비닐하우스가 들어서 있다. 마을의 동쪽 끝으로 통일로가 지나고 공릉천이 흐른다. 예전에는 이곳을 지영리(芝靈里)라 표기했으나 일제 강점기 때 지영리(芝英里)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마을 앞 큰 벌판에 연꽃과 난초 등 꽃 뿌리가 많이 서식하고 있어 붙여졌다고 한다.

### 설문동 (雪門洞)

설문동은 지영동의 서북쪽에 위치한 마을의 범정동 명칭으로 대부분 농촌지역이다. 파주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군주리, 오촌말, 빈골, 셋상골, 앞말, 신촌, 맏골, 가장골, 님말 등의 자연촌락이 있다. 마을의 서쪽으로는 일산~불일

천 간을 연결하는 고봉로가 지나고 있다.

설문동은 이곳에 설(高)씨 문중이 많이 살아 설문리라고 했다고 하는데 일제 강점기 때 행정 지명 개칭에 따라 설문리(雪門里)로 바뀌었다고 한다. 또 달리 마을에 효자문·열녀문이 있었는데 이 문에 눈이 쌓여 설문마을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 문봉동 (文峯洞)

문봉동은 사리현동의 서쪽 일산 방향에 위치한 마을의 법정동 명칭으로 상촌, 빙석촌, 안촌, 장진네, 외골 등의 자연마을이 있는 마을이다. 문봉 독산 봉수대(봉화대)를 비롯해 관내에 고봉동주민센터, 성석초등학교 등이 있고 대부분 농촌 지역이며 마을 중앙으로 벽제~일산으로 이어진 성현로가 지나고 있다.

문봉동의 지명 유래는 세가지 설이 있다. 첫째는 조선시대 때 지금의 빙석촌에 '문봉서원'이라는 서원이 있어 선비들이 글을 배웠다고 한다. 이 서원 도로 앞에는 하마패라는 곳이 있어 이곳을 왕래하는 사람들이 말을 탄 채로는 지나다니지 못할 정도로 중요시하였다. 또 말에서 내려 걸어갈 때에도 예를 갖추고 조심해서 지나갈 정도로 문(文)을 받드는 곳이어서 문봉리(文峯里)라 불렀다고 한다. 두 번째 유래설은 여러 자연촌락이 합쳐져 이루어진 이곳의 모습이 마치 견달산 산봉우리를 모은 것과 같다고 하여 모은봉이라 부르다가 이것이 점차 문봉으로 바뀌었고 마침내 이 문봉을 한자로 표기하여 문봉(文峯)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세 번째 유래설은 고양8현을 모신 문봉서원이 이곳에 있었는데, 문봉은 곧 견달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견달산의 모양새가 마치 붓의 끝과 같이 생겨 문봉리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 성석동 (城石洞)

성석동은 문봉동의 서쪽에 위치한 마을의 법정동 명칭으로 진밭, 사당골, 잣골, 두테비, 감내, 오래골 등의 자연촌락이 있다. 마을 중앙으로 성석로와 봉일천~일산 간 고봉로가 지나고 있다. 대부분 농촌마을로 비닐하우스, 벼농사 재배 등을 하고 있으며 주택은 개량식 한옥이 많고 명문 거족들의 선산들이 곳곳에 위치해 있다.

이 마을 성석동의 지명 유래는 고봉산으로 둘러싸여 마치 산으로 병풍을 쳐놓은 듯하기도 하고, 성을 쌓아놓은 듯하기도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고 한다. 또 이와는 달리 이곳에는 이무기를 쫓잡 못하게 했다는 두꺼비바위(두텁바위)가 있었다는 전설로 '돌석(石)' 자를 붙여 성석리(城石里)라 불렀다고 한다. 이외에도

고봉산에 삼국시대부터 토성(土城)이 축조되어 있었는데 성석이란 명칭은 돌과 흙으로 성(城)을 쌓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기도 한다.

### 정발산동 (鼎鉢山洞)

본래 일산구 일산4동으로 불리다가 법정동으로 나뉘면서 정발산동이 되었다. 정발산동은 해발 81m의 정발산 북쪽에 위치하고 이 산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붙여진 명칭이다. 단독주택 및 저층상가, 공원, 빌라, 교육기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통이 편리하며 경의선,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도 발달되어 있다. 밤가시 초가가 유일한 문화재이며 공원, 녹지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신도시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단양이씨 등이 대규모로 집성촌을 이루어 살기도 했다.

### 산황동 (山黃洞)

산황동은 풍동의 남동쪽과 경의선 전철 곡산역의 동북쪽에 위치한 마을의 법정동 명칭이다. 마을은 현재 1개의 법정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 농촌마을이다. 마을에는 당재밭, 안밭, 밤밭, 모동밭, 셋골, 온수골, 주막골 등의 자연마을이 있다. 산황동은 산의 흙이 유난히 누런 빛깔을 띠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마을 앞으로는 고양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연결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나고 있다. 이 마을은 인구, 면적 등에서 우리 시에서는 가장 적은 마을 중 한 곳이다. 특별한 문화유산은 없으며 도지정 보호수 느티나무가 유명하다.

### 식사동 (食寺洞)

식사동은 시청이 있는 주교동의 서북쪽에 위치한 마을의 법정동 명칭으로, 최근에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었다. 마을 뒤편에는 고양시의 명산(名山)인 견달산이 우뚝 솟아 있으며 영심이, 오룡동, 동거리, 밤아고개, 어침이, 견달, 고운마을, 능안골 등의 작은 마을이 있었으나 일부 마을은 개발된 상태이다. 마을 한가운데로 개발 제한구역 경계선이 지나며 논과 밭 그리고 산, 공장, 고층아파트가 공존하고 있다. 관내에는 은행마을, 동국대불교병원, 식사동주민센터, 원중초등학교가 있다.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이 조선 태조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신진 사류들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이들을 피해 개성을 빠져나와 임진강을 건너 남쪽으로 도망가다가 이곳 식사동까지 도망왔다고 한다. 이때 공양왕에게 견달산 아래에 있던 어침사 절에서 스님들이 공양왕에게 밥을 해주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 식사동이라 한다.

### 3. 일산서구 (一山西區)

일산서구는 일산동구에서 분리된 행정구의 명칭이다. 예전 시 승격 이전의 일산읍과 송포면 지역의 행정구역이 포함되어 일산 신시가지를 비롯한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와 농촌, 준 도심지 마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유로와 제2자유로의 건설 등으로 개발의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한강과 인접해 있는 평지마을은 도시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 일산동 (一山洞)

일산동은 일산역 주변의 (원)일산과 일산 신시가지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마을 가운데로는 경의선을 비롯해 고양대로, 고봉로 등의 도로가 지나 교통이 매



우 편리하다. 이곳에는 일산초등학교를 비롯해 여러 곳의 교육기관이 있으며 주민센터, 치안센터 등의 기관 등도 밀집되어 있다. 신시가지 개발 전까지는 논과 밭, 산이었지만 현재는 (원)일산, 후곡마을에 대부분 아파트, 주택, 상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이곳 일산동에 살고 있으며 1·2·3동의 행정동을 가지고 있다.

일산에 대한 지명 유래설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일제가 1900년대 초에 경의선을 부설할 당시 중면의 면사무소를 현재의 백석동에서 일산역 부근으로 옮김에 따라 이 지역을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다시 만들게 되었다. 이때 새로운 행정구역의 명칭을 옛 송포면 덕이리 한산마을의 고유 명칭인 한뫼를 따서 일산(一山)이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둘째로, 일산은 곧 고봉산을 가리키는데 이것을 순수한 우리 명칭으로 바꾸면 '한산'이 된다. 이 한산의 의미는 큰 산(山), 높은

산이라는 뜻이라 하는데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이 우리 민족 고유 지명의 격을 낮추기 위해 한산의 높고 큰 의미를 일산(一山)으로 뜻을 낮추어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셋째, 일산은 본래 우리 고유의 옛 지명으로서 한산마을의 옛 이름인 일산을 그대로 사용해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이다.



#### 탄현동 (炭峴洞)

탄현동은 일산동의 북쪽에 위치한 마을의 법정동 명칭으로 일명 숲고개라 불리는 곳이다. 본래 탄현동은 상탄·중탄·하탄으로 불리던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으나 1990년대 초 탄현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현재는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마을 안에 SBS 탄현 드라마 제작소, 일산 홀트학교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초·중·고 등 여러 교육기관이 있다.

탄현동을 한글로 풀어쓰면 숲고개가 되는데 『고양군지』 책에 따르면 이곳 탄현동에는 예전부터 참나무가 많았는데 이것을 베어 숲을 구었다 하여 숲고개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주엽동 (注葉洞)

주엽동은 일산 신시가지 내 문촌·강선마을이 위치한 곳의 법정동 명칭으로 일산동의 서쪽과 북서쪽에 위치한다. 고양시의 여러 마을 중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며 지하철, 버스 등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다. 300여 년 된 회화나무도 이곳에 보존되어 있으며 상가, 고층아파트, 교육기관 등이 큰 규모로 들어서 있다. 시 승격 이전 이곳은 새말, 오마리, 문촌, 강선, 하주, 상주 등의 마을이었다.

주엽이란 이름은 옛 주엽3리의 문촌마을에 있는 골동산(곡동산) 꼭대기에서 볼 때 마을 전체의 지형이 잎사귀 모양으로 보여 주엽이라고 했다 하며, 또 달리 주엽마을 중앙으로 흐르는 샛강에 가을만 되면 큰 나무의 잎사귀가 떨어져 한강

으로 흘러 내려간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주업을 이 지역 사람들은  
줄여 부르면서 '쨌비' 라 하기도 한다.

### 대화동 (大化洞)

대화동은 일산 신시가지의 가장 끝에 위치한 마을의 법정동 및 행정동 명칭이  
다. 일부 지역은 일산 신시가지에 포함되어 아파트와 고양종합운동장이 건설되  
었다. 또한 킨텍스 2단계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나머지 대화동 지역은 대  
부분 농촌마을로 벼농사를 주로 했으나 요즘에는 마을 모습이 급격히 아파트  
촌으로 변했다. 본래 이곳에는 양촌, 김서, 김동, 성저리, 장성, 장촌, 백암, 먹  
걸, 내촌, 시촌 등의 자연마을이 있었다. 현재 행정동 대화동은 성저·장성마을  
로 구분되어 있다. 마을 앞으로 중앙로, 고양대교가 지나고 성저초등학교 등 및  
곳의 교육기관과 지하철 3호선 대화역도 이곳에 있다.

대화동이란 이름은 1914년 3월 1일 부·군·면을 합칠 당시 김동(金東), 장촌  
(場村), 김서(金西), 백암(白岩), 강서(江西), 성저리(成低里) 등 여러 개의 자연  
촌락을 합쳐 '크게(大) 변화된(化) 마을' 이라 하여 대화리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가좌동 (加佐洞)

가좌동은 대화동의 서북쪽에 위치한 마을의 법정동 명칭으로 대화동과는 장월  
평천을 사이에 두고 있다. 마을 앞쪽으로 송포평야가 길게 이어져 고양시 최대  
의 과창지대를 이루고 있으며 집들은 산과 구릉지가 만나는 구릉성 산지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관내에 송포초등학교를 비롯해 송포농협 가좌지소 등이 있고 일  
산으로 이어진 송산로, 송포로가 있다. 중산, 배미, 읍송, 두신, 당읍, 새말, 율  
리, 고새기, 안말 등의 자연촌락 마을이 있다.

가좌라는 이름의 유래는 첫째, 지금의 가자울에는 가재우물이 있었는데 우물  
이 어찌나 맑고 시원한 지 가재들이 살 정도였다고 한다. 그래서 가좌가 됐다는  
설과 둘째, 가자울에는 개울이 몇 개 있었는데 이 개울에 가재들이 많았다고 하  
여 붙여진 지명이라는 설이 있다.

### 구산동 (九山洞)

구산동은 가좌동의 서쪽과 서북쪽에 위치한 마을의 법정동 명칭으로 고양시의  
서쪽 끝에 해당하는 곳이다. 이 중 한강 방향에는 넓은 벌이 있으며 그 앞으로  
자유로가 이어져 있다. 마을 앞으로 송산로가 지나고 거그위, 노루위, 장월, 새

태말 등의 마을이 있다. 많은 지역이 파주시 교하지역과 경계를 하고 있으며 마을 앞으로 장월평천이 흐르고 있다.

이곳의 지명 유래는 첫째, 옛 구산4리 마을에 있는 산 모양이 거북이와 닮았다 하여 유래했다는 설과 둘째, 옛 구산1리와 4리에 있는 산은 거북이 꼬리를 닮았고 구산2리에 있는 산이 거북이 머리를 닮아 전체적으로 마을 모양이 거북이 형상과 유사하다 하여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그리고 이 마을에 조선시대 때에 유명한 유학자 구봉 송익필 선생이 살았는데 그 분의 호를 따 구산동이 되었다는 설도 있다

### 법곶동 (法串洞)

법곶동은 대화동의 서쪽인 한강 방향에 있는 마을의 법정동 명칭으로 동촌, 서촌, 이산포 등의 자연촌락이 있다. 마을 중앙으로 장월평천이 흐르며 주변에 기름진 평야가 펼쳐져 있다. 이산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옛 모습이 남아 있으며 서남쪽 끝으로 자유로가 지나고 있다. 최근 들어 비닐하우스, 창고, 단독주택 등이 지어져 마을 모습이 급속히 변하였다. 현재 제2자유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법곶동은 예전 한강 제방이 축조되기 이전에 한강으로 왕래하는 배들이 정박하던 조그마한 포구 이용에서 유래한다. 즉 '법' 자는 법수산에서, '곶' 자는 한강으로 불룩나온 이산포에서 유래한다. 이곳 이산포는 행주나루와 함께 고양시의 대표적인 나루였다.

### 덕이동 (德耳洞)

덕이동은 대화동의 북쪽과 북서쪽에 위치한 마을의 법정동 명칭으로 일산 신시가지와 인접해 있다. 파주시 금촌으로 이어진 경의로와 경의선 철도가 지나고 있으며 송산로도 지나고 있다. 앵굴, 할미(한산), 덕위, 자방, 운장, 추산, 찰리 등의 자연촌락이 있고 최근 들어 일산공단을 대신하여 고층의 아파트가 지어져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도 하다. 관내에 덕이초등학교가 있고 마을 입구에 신성교 통 차고가 있다. 이곳에는 송포 백송을 비롯해 태극단 묘지, 충혼탑이 있고 최근에는 의류상설매장이 들어서 그 모습이 크게 달라졌다.

정확한 지명 유래설은 전하지 않으나 일설에는 덕이라는 이름은 옛 덕이4리 덕위마을의 명칭을 따 붙여진 것이라 한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덕이 많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산다고들 한다.

# 제 6 장

## 고양시 바로알기

강의 자료



---

정동일 (고양시 문화재 전문위원)

---

## 제6장

### 고양시 바로알기(강의자료)



#### 고양시, 내 고장 바로알기

- 위치 : 경기도의 서북부에 위치하며 동으로는 서울시 및 양주시, 서로는 서울시 및 김포시, 남으로는 서울시, 북으로는 양주시, 파주시와 이웃하고 있다.
- 철도 : 경의선, 교외선, 지하철 3호선, 고속철도(KTX)
- 고속도로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 고양, 봉일로 나들목)
- 세계문화유산 : 서오릉(창릉, 홍릉, 경릉, 익릉, 명릉), 서삼릉(효릉, 희릉, 예릉)

#### 고양시 명칭의 유래와 역사

서기 1413년 3월 23일, 고봉현의 고(高)자와 덕양현의 양(陽)자를 합쳐 고양으로 정하였다. 이후 조선 성종대에 고양현에서 고양군으로 1992년 승격되었다.

## 고양의 산, 들, 강

- 산 : 북한산, 삼각산(백운대, 인수봉, 만경대), 노고산, 덕양산, 개명산, 고봉산, 견달산, 망월산, 장령산, 우암산, 매봉, 봉대산, 대덕산, 영주산, 황룡산 등
- 강 : 한강(예전에는 대강, 행주강, 행호로도 불림)
- 하천 : 창릉천, 공통천, 도촌천, 장월평천 등
- 들 : 송포평야, 일산평야, 능곡평야
- 우리시의 상징물 : 새(까치), 나무(백송), 꽃(장미)
- 지정문화재 : 총 101점(경기도 내 최다), 전통사찰 7곳

## 우리시의 주요 연혁(역사)

- 7만 5천년 전 : 일산서구 성지유적지에서 구석기시대 유적 발굴  
(현재 송북대, 단국대 박물관 등에 유물 소장)
- 2만년 전 : 일산동구 마두동에서 주먹도끼 발굴(한국선사문화연구소 소장)
- 1만년 전 : 고양시 일대에 대홍수 발생(일산 뱀층에서 토탄층 및 목조 발견)
- 5천년 전 : 일산 대화 가와지 범씨 출토(고양시농업기술센터 소장)
- 3천년 전 : 국사봉 및 지령산, 향동동 등에서 고인돌 발견
- 기원전 18년 : 백제의 시조인 온조와 비류가 북한산에 올라 한성 백제를 건국,  
최초 백제의 영토로 편입, 고구려 장수왕대에 고구려,  
신라 진흥왕대에 신라 영토

백제 : 해상 교통의 통제를 위해 주로 한강 주변의 덕양산 일대에 주둔

고구려 : 달을성현, 계백현으로 불리며 주로 고봉산성 일대에 주둔

신라 : 고봉현, 우왕현(왕봉)으로 부르며 주로 북한산성에 주둔



- 고려 : 주로 고봉현과 행주현(덕양현)으로 불림
- 조선 태조 : 고양지역에 고봉감무를 설치(현재와 비슷한 면적이 확정됨)
- 태종 : 고양현 설치(당시 현감은 종6품)  
    당시 관아는 현재 원당동 회룡 부근에 소재
- 세종 : 당시 인구는 1,300명
- 성종 : 관내에 왕릉이 있어 고양군으로 승격
- 연산군 : 고양지역의 허파(금표비 설치)
- 중종 : 고양군의 군청을 원당동에서 현재 대자동 고읍으로 이전
- 선조 : 임진왜란 발발로 행주대첩 및 벽제관 전투
- 효종 : 고양군청이 대자동에서 고양동으로 이전함
- 영조 : 고양군 인구는 13,000명  
    고양지역의 역사와 현황 등이 기록된 고양군지가 말간됨  
    (현재 서울대 규장각에 원본 보관)
- 고종 : 고양군이 경성부에 속함
- 1903년 : 경의선 개통(고양지역에 역사, 경제, 교통에 큰 영향을 줌)
- 1906년 : 양주군 신혈면이 고양군에 새롭게 편입(선유, 오금, 효자, 지축 등)
- 1911년 : 9면 50개리를 관할(현재의 관할구역과 90% 동일)
- 1914년 : 고양군청이 고양동에서 서울 서대문 부근으로 이전  
    서울 강북지역의 대부분이 고양지역에 편입
- 1936년 : 서대문의 고양군청이 다시 동대문 부근으로 이전  
    (당시 고양군은 현재의 관할구역 및 서울 강북의 대부분과 강남의 잠실, 여의도까지 면적이 확대됨)
- 1949년 : 고양군의 현재 서울구역이 서울로 편입
- 1950년 : 6·25 전쟁 발발(고양지역은 큰 피해를 봄)
- 1961년 : 고양군청이 서울에서 고양군 원당면으로 이전(현 성사1동사무소)
- 1963년 : 현 고양시청 자리로 군청 이전
- 1968년 : 고양지역을 통해 김신조 외 무장공비 청와대로 이동(군사시설 화층)
- 1972년 : 고양지역에 최초로 개발제한 구역 지정(그린벨트)
- 1973년 : 고양군 신도면의 구파발리 등이 서울로 편입  
    신도면이 읍으로 승격한 후 중면, 원당면, 벽제면, 지도면이 읍으로 승격
- 1984년 : 제1회 고양시 행주문화제 실시
- 1985년 : 화전출장소가 화전읍으로 승격(면은 송포면)
- 1985년 : 원당, 능곡, 성사, 관산, 일산에 소규모 도시개발(주공아파트)

- 1987년 : 230년 만에 고양군지 발간
- 1989년 : 일산신도시 개발 발표
- 1990년 : 한강 제방 붕괴(근대 최대의 수해 피해)
- 1992년 : 고양군이 고양시로 승격
- 1995년 :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 1996년 : 고양시 덕양구, 일산구 설치
- 1997년 : 제 1회 고양시 세계 꽃 박람회 개최
- 2005년 : 일산구가 동구와 서구로 분구

2000년대 이후 고양지역은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 등이 신설되어 아람누리, 어울림누리, 킨텍스, 종합운동장, 호수공원, 자유로 개통, 지하철 3호선 개통, 경의선 전철 복선화가 완성되었다. 현재는 한류월드, 킨텍스 2단계, 영상 산업단지 조성(브로맥스), 문화원사 건립 등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삼송, 향동, 지축, 원흥 보금자리 주택사업의 실시로 도시화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북한산 이야기

북한산은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1-1번지와 서울시, 양주시 경계에 있는 명산으로 1년에 1천만 명 이상이 찾고 있는 수도권 내 유일의 국립공원이다. 최고봉인 백운봉을 비롯하여 인수봉, 만경대가 가장 아름다운데 이를 삼각산으로 부르기도 한다. 삼국시대에는 주로 북한산, 부아악으로 불렸고 이후 고려조 중기부터 조선조까지 대체로 삼각산으로 표기했다. 삼각산은 북한산의 28개 큰 봉우리 중 앞의 세 봉우리를 부르는 별칭으로 총 면적의 92%가 고양시 구역이다.

북한산에는 국왕의 이궁인 행궁을 비롯하여 태고사 원종국사탑, 북한산성 등 총 10여 점의 보물 및 사적, 유형문화재가 있는 유서 깊은 곳이며 북한산 팔경도 전해지고 있다. 이 산에서 발원한 창릉천은 고양 덕양지역의 젖줄 역할을 해왔다.

## 한강 이야기

우리시 덕양구 대덕동으로 처음 들어온 한강은 북서 방향으로 흘러 일산서구 송산동을 끝으로 파주시로 빠져 흐른다. 총 길이는 약 23km.

고대로부터 해상 교통으로 중요하게 여긴 중요 하천이며 고양시민 대부분이 한강물을 마시고 있는 생명줄이 되고 있다. 조수 간만의 차가 매우 크며 하절기 장마 때가 되면 범람하기도 한다. 1925년 을축년 대홍수에 큰 피해가 있었고 1990년 9월 고양지역에 큰 수마의 상처를 겪기도 했다.

오래전부터 고양지역에는 행주나루, 이산포 나루가 유명했다. 본래 한강에는 지금은 사라진 갈대밭과 작은 섬이 여러 곳 있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사라지고 대표적인 하류 습지인 장항습지가 보존되고 있다.

한강의 대표적인 나루인 행주나루는 조선시대 조운배들의 중간 기착지 등으로 크게 번성하여 고양지역 최대의 중심지이기도 했다(행주교회, 행주성당, 행주서원 등).

군 철책의 일부 제거가 추진되고 있어 곧 좀 더 가까운 모습으로 한강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 이야기

2009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양의 문화재는 총 8기의 능이다.

조선조의 총 42기의 능은 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만들었으며 같은 모습의 왕릉은 없다. 우리시에는 조선조 전기의 창릉을 비롯해 마지막 왕릉 구조를 간직한 예릉까지 왕릉의 변천사를 알 수 있는 야외박물관과 같은 곳이다.



조선왕릉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1. 518년 동안 한 기의 능도 실전됨이 없는 점
2. 조선조의 학문 및 사상, 풍습, 조경, 예술 등 문화 역량의 총집결
3. 500년 넘게 왕릉 제례가 이어오는 점
4.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건축물 구조 등
5. 왕릉에 남아 있는 석물들의 세계적인 조각 수법
6. 왕릉지 및 의궤를 통해 남겨놓은 기록물의 높은 가치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왕릉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 고양의 얼 행주산성 이야기

1593년 2월 12일 고양 한강가 덕양산에서는 큰 전투가 있었다. 권율 도원수가 지휘하는 총 3천 명의 아군과 일본 우끼다 히데이에의 3만 대병력이 대첩을 치루고 있었다. 총 12시간의 사투 끝에 조선군의 승리로 마무리 되었는데 이를 우리는 행주대첩이라 하여 임진왜란 3대첩의 하나로 기록하고 있다.



### 당시 승리의 원인은

1. 행주산성의 전략적 요새 및 지형, 지물의 우세함
2. 신기전 및 화차, 비격진 천뢰 등의 우수한 무기
3. 한강을 통한 보급 및 지원
4. 민관군, 여성, 승병의 일치 단결된 총력전
5. 조수 간만의 차이를 이용한 전략적 우세성 등을 들 수 있다.

행주대첩의 결과 일본군은 한양을 버리고 삼남지방으로 후퇴했으며 조선군은 수비에서 공세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시에서는 이를 기리기 위해 행주대첩의 정신을 행주얼이라 하고 있으며 행주대첩제 및 행주문화제 등을 통해 국난극복의 정신을 기리고 있다.

## 고양시의 10대 대규모 토목공사

1. 한강 제방 축조
2. 제1자유로 및 제2자유로 건설

3. 정의선 개통 및 지하철 3호선 개통
4. 일산신도시 건설 및 택지개발
5. 킨텍스 1, 2단계 건설 및 한류월드 조성
6. 북한산성 축성
7. 고양아람누리, 고양어울림누리 건설
8. 서울의곽순환고속도로 건설
9. 고양종합운동장 건립
10. 고속철도(KTX) 기지창 건설 및 지축 기지

### 고양의 특산물

행주 용어(위어), 정란(잘 다듬은 갈대), 개, 행주 옷, 이산포 송어, 탄현의 숯, 지축동과 장항동의 종이 및 탁나무, 정발산동의 밤, 화훼, 조경목, 딸기, 잣잎, 선인장, 가구, 공예품

### 먹거리

고양 털레기, 용어회 및 용어구이, 행주 장어, 고양 막걸리, 일산 칼국수 등

### 민속놀이

용구재 이무기제, 맹개안 사줄다리기, 송포 호미걸이, 선공감 김감역호상 상여소리, 삼성당 기싸움놀이, 신아대 말짱박는 소리, 행주 농악놀이, 고양 들소리, 마두 장군놀이, 십이지신 불한당 물어놀이, 고양 쌍그네놀이, 진밭 두레패

### 전설 및 동화

고봉산과 심학산이 싸운 이야기, 고봉산과 한씨 미녀, 주엽동의 아기장수, 행주 용어 이야기, 백석동의 흰 돌 이야기, 행주 서복돌 잠꾸러기 이야기, 노적봉과 밤



박태성 묘와 호랑이 석상

할머니, 고양동 퇴폐고개, 서오릉 별고개, 식사동과 공양왕 삼살개, 주교동 배다리, 대장동의 의로운 개 이야기, 송신동의 오줌고개와 통골짜기 이야기 등

## 고양의 인물

- 공직자, 청백리의 표상 : 무민공 최영 장군
- 전란에서 고양시를 지켜낸 : 권율 도원수
- 고양의 정신적인 상징 : 문봉서원과 고양8현(충신, 효자 및 학자)  
추강 남효온, 복재 기준, 사재 김정국, 모당 홍이상  
석탄 이신의, 행촌 민순, 추만 정지운, 만회 이유집
- 조선조 최고 문학의 대가 : 송강 정철과 석주 권필
- 독립운동가 : 이가순, 장흥, 김익상, 장효근
- 임진왜란 때 이름 없이 죽어간 : 밥 할머니 및 행주치마의 의병들
- 고려 말 조선조 불교를 통일한 : 원종국사 보우 대사
- 고양군지를 편찬 : 고양군수 이석희
- 전통의 소리와 함께 한 진정한 소리꾼 : 동관 김현규

## 재미있는 땅 이름

- 삼송동 : 소나무 세 그루
- 백석동 : 흰 바위에서 유래
- 마두동 : 말머리 모양
- 화정동 : 꽃 우물
- 주교동 : 배로 다리를 만든 곳
- 대화동 : 작은 마을이 큰 마을로 변한다
- 식사동 : 왕에게 밥을 해준 절
- 효자동 : 박태성 효자의 고장
- 용두동 : 용 머리를 닮은 곳
- 성사동 : 별이 모래와 같이 많은 곳
- 고봉동 : 고봉산이 있는 마을
- 장항동 : 노루가 다니는 길목
- 고양동 : 고양군청이 있던 마을
- 향동동 : 꽃 향기가 피어나는 곳
- 강선마을 : 신선이 내려온다는 아름다운 곳

## 우리 고장의 장례법

매장법은 기본적으로 교인을 제외하고는 탈관을 한다. 일반인은 자신의 신장과 같은 길이로 매장하며, 왕은 자신의 키에 2배로 매장한다. 상여는 통상 10인용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별도의 상여도가 보존한다.

고양지역은 소종보다 북을 치며 상여소리를 하며 3일장은 지른다. 전통적으로 화장보다는 매장을 선호하며, 전통제례의 전설은 흥동백서, 조율이시, 과채당적, 좌포우혜, 어동육서를 지킨다. 통상 49제나 100일 탈상을 유지하다가 최근에는 삼우제로 마무리한다.

## 고양시의 주요 문화유산

- 세계문화유산 : 서오릉, 서삼릉
- 고려조의 왕릉 : 고려 공양왕릉
- 고려말 불교 개혁의 조계종 중시조 : 원종국사 부도탑과 비석(보물)
- 아름다운 산성 : 북한산성
- 1,400년 전 문화재의 보고 : 흥국사
- 중국에서 건너온 흰 소나무 : 백송(천연기념물)
- 아름다운 지붕 중정이 있는 : 밤가시 초가
- 한국에서 가장 예쁜 봉우리 : 삼각산(명승지)
- 호수공원의 천연기념물 : 단정학(두루미)
- 100년 전의 돌다리 : 강매동 석교
- 독립운동의 의지를 새긴 : 백운대 3·1 운동 암각문
- 고려시대의 무덤 모습이 그대로 담긴 : 최영 장군 묘
- 고양지역 연산군 폭정의 상징 : 연산군 금표비
- 김홍도가 그린 명화 : 흥국사 극락구품도
- 나무로 깎은 예술품 : 목조 아미타 여래불
- 백제의 1,000년 전 역사를 간직한 : 먹절 유적지
- 조선의 교통 수단 봉화를 올린 : 독산 봉수대
- 임진왜란 3대첩지 : 행주산성
- 고양의 교육을 담당한 : 고양향교, 행주서원
- 고양의 의병장 : 밥 할머니 석상
- 조선의 왕을 지켜라 : 북한산성 행궁지
- 신라 청자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는 : 고려청자 도요지
- 고양의 춤과 가락이 이곳에 : 송포 호미질이



- 경기소리의 특징이 담겨진 : 휘모리 잡가
- 금과 은을 녹여 장신구를 만드는 : 금은장
- 불교 그림을 그리는 : 불화장
- 종이를 배접하는 : 배접장
- 전통마을의 전통 : 두레 진발 두레매놀이, 정발산 도당굿, 밤 할머니 제례, 흰돌 제례, 풍동 식품 산치성 제례

## 고양의 축제

세계 꽃 박람회, 꽃 전시회, 행주문화제, 고양시 웰빙 축제, 행주대첩제, 고양 호수 예술제, 고양시민의 날 축제, 고양시 한마음 축제 등

## 고양의 명승지(널리 알려진 곳)

일산 호수공원, 북한산, 행주산성, 서오릉, 서삼릉, 킨텍스, 중남미 문화원, 어울림누리, 아람누리, 노래하는 분수대, 장항습지, 라페스타, 웨스턴 돔, 애니골, 민속전시관 밤가시초가, 항공대 우주 박물관, 배다리 술 박물관, 주주 동물원, 경마 교육원



## 걷기 좋은 곳(일명 고양 누리길)

- 행주 누리길(원당역-행주산성)
- 서삼릉 누리길(원당역-서삼릉-삼송역)
- 고양동 누리길(필리핀 참전비-고양동-선유동)
- 고봉산 누리길(안곡초교-고봉산-감내마을)
- 송강(공릉천) 누리길(주주 동물원-공릉천-송강마을-농골마을)

## 고양의 큰 고개

- 해음령, 퇴패현, 숫돌고개, 송강현(낙타고개), 숲고개, 바느라지고개

## 고양이 가지고 있는 장점

1. 다양한 계층이 거주하는 활기찬 도시(젊은 도시)
2. 전통과 현대,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이룬 도시
3. 수도권에서 푸른 숲과 나무가 많은 환경도시
4. 전철, 공항, 고속도로, 공원 등 생활기반 및 접근성이 좋은 도시
5. 북한산과 한강이 있는 쾌적한 도시
6. 문화 및 복지가 잘 갖추어진 도시
7. 토지 가용도가 많은 도시
8. 남북관계 개선 등에 따라 통일 효과의 잠재력이 큰 도시
9. 수도 서울과 인접하여 중앙의 잇점을 활용할 수 있는 도시
10. 수도권에 위치하여 미래 발전적 잠재력이 높은 도시

## 향후 개선해야 할 고양시의 당면과제

1. 고양시 공직자 및 시민들에게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
2. 대 시민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애향심 제고
3. 미래 지향적 사고를 통해 향후 100년 계획
4. 도시화로 인한 환경 및 삶의 질 하락에 대한 대책
5. 박물관 건립 등을 통한 고양시의 역사 및 현대사의 기록, 보전



고양시  
Goyang City